M 45-11 / 2001. 7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11호 (2001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 태 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목 차

Ⅰ. 농업 농정 동향
중국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보복조치 단행 ····· 3
중국 유기농산물 수출확대 도모 ····· 9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사과가공산업 현황 ····· 12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5) ····· 14
일본의 21세기 농림수산분야 IT 전략 ····· 24
호주 유기농산물 연간 20% 성장 전망 ····· 26
미국 인터넷으로 농업비즈니스 확대 ····· 30
미국 축산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 34
미국 채소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 37
캐나다 해외 구제역으로 식육산업 수익증대 ····· 40
영국 농가에 농업통화보상금 지불 ····· 42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시행지침 ····· 44
EU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지침 ····· 48
EU 유전자변형작물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51
EU의 농업부문 전자상거래 발전 전망 ····· 57
EU의 농업부문 리스크관리 수단 ····· 59
Ⅱ. 국제기구 논의동향
제8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 67
제2차 NTC 컨퍼런스의 논의동향과 향후과제 ····· 78
중국의 WTO 가입절차와 향후전망 ····· 82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산림분야 추진성과 ····· 86
Ⅲ. 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2001년도 1분기 농산물 무역개황 ····· 95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6) ····· 99

농업 농정 동향

중국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보복조치 단행
중국 유기농산물 수출확대 도모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사과가공산업 현황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5)
일본의 21세기 농림수산분야 IT 전략
호주 유기농산물 연간 20% 성장 전망
미국 인터넷으로 농업비즈니스 확대
미국 축산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미국 채소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캐나다 해외 구제역으로 식육산업 수익증대
영국 농가에 농업통화보상금 지불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시행지침
EU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지침
EU 유전자변형작물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EU의 농업부문 전자상거래 발전 전망
EU의 농업부문 리스크관리 수단

중국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보복조치 단행

1.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이후의 동향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GATT 또는 WTO의 무역상의 의무를 정지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입국에게 주어진 수입제한조치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에는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몇 가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①발동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가. ②발동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③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④발동이후 발동대상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가 등이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조치와는 달리 수출국에 하자가 있어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전체 수출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항상 상대국의 보복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세이프가드는 당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발동기간 중에 당해 산업의 구조개혁을 도모하여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없는 한 발동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산업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생산대책, 유통대책, 소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이 지난 4월 23일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중국이 일련의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마찰의 경과를 소개한다.

표 1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경과

일자	조치
2000. 11. 24	○ 일본 농림성이 대장성·통산성에 정부조사 요청
12. 19	○ 일본 정부조사 결정(대상품목, 파, 생표고, 골풀)
2001. 1. 23	○ 일본 농림성 SG관련 정보수집 모니터링 체제 구축
4. 1	○ 일본 신선식물 검역강화
4. 10	○ 일본 잠정세이프가드 발동결정
4. 23	○ 일본 잠정세이프가드 발동(200일간)
4. 24	○ 중국 대일 수입품 목재상자에 대한 검역강화
6. 2	○ 중국 대일 자동차 수입쿼터 감축 발표
6. 18	○ 중국 대일 수입자동차·휴대폰·에어컨에 특별관세부과 발표
6. 21	○ 중국 북경의 일본대사관에 세이프가드 보복조치실시 정식통고
6. 22	○ 중국 일본의 자동차·휴대폰·에어컨에 100% 특별관세 부과

2.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효과

지난 4월 23일 잠정발동 된 파와 표고의 4월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고, 도매가격도 상승경향으로 접어들고 있어 농림성은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무성(구 대장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의하면, 4월 수입량은 발동 전인 3월과 비교해 파는 35%, 표고는 3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수입감소 영향으로 도매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파는 5월 중순시점으로 1kg당 206엔으로 4월과 비교해 9%, 표고도 28% 상승하고 있다.

한편, 감시대상품목인 피망은 3월과 비교해 수입량이 30%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피망은 샐러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시대상 5품목의 도매가격은 전월대비는 하락 내지 정체하고 있고, 전년동기에 비해 토마토와 양파는 높은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표 2 세이프가드 관련품목의 수입량과 도매가격 동향

		2001년 4월 수입량(톤)	전월대비 (%)	2001년 5월 도매가격(엔/kg)	전월대비 (%)
파		1,877	▲35.3	206	9.0
생표고		2,295	▲37.1	774	28.4
감시대상품목	피망	1,686	30.8	226	▲37.4
	토마토	390	▲43.6	220	▲35.1
	양파	18,779	▲32.6	85	▲3.4
	뱀장어	9,386	19.7	1250	▲7.4
	미역	8,344	▲13.8	230	0.0

주 : 도매가격은 東京都中央卸賣市場價格, 2001년 5월은 동월 中旬平均가격임.

3. 중국의 보복조치 단행과 향후 전망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하여 중국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항해 왔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익일(4월 24일)부터 몇몇 항구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기계류 부품 등의 포장자재인 '목재상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중국은 6월 2일에 6월~10월분 대일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를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도 이에 의한 수입제한 영향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업자들을 통하여 현지에서의 통관지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도였다.

표 3 세이프가드 관련품목

	대상품목
잠정발동(4월 23일부터)	파, 생표고, 골풀
정부조사개시(4월 16일부터)	타올
조사요청중	양파, 토마토, 피망, 뱀장어, 미역, 목재
상기이외 감시대상	마늘, 가지, 건표고, 가다랭이, 합판, 가당조제품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중국 대외경제협력부의 高燕 대변인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3품목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高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산 파, 생표고, 골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불공정하고 편견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중국 관련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양국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6월 21일 중국의 대외경제협력부는 북경의 일본대사관에 보복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하였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을 대상으로 100%의 특별관세를 추가하는 조치를 22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정식으로 일본의 세이프가드발동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승용차)의 경우 8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100%의 관세를 추가한다면 사실상 일본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일본의 100만엔 상당의 자동차에 대해 80%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국내가격은 180만엔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100%의 특별관세를 추가하면 국내가격은 360만엔이 되어 사실상 수출은 중단될 것이다.

2000년도 일본의 대중 자동차수출 대수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4만 7,000대로 전체 수출의 1% 정도이다. 금액으로는 자동차 452억엔, 휴대폰 111억엔, 에어컨 56억엔 등에 불과하다. 이번 보복대상 3품목의 일본 중국간 무역양상은 일본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류이다. 그래서 수입제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일본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 중단이 중국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히라누마(平沼赳夫) 경제산업성(구 통상산업성) 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든 일중 무역협정에서 보든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극히 유감이다.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중국측에 신청하고 있다.

다께베(武部) 농림성 장관도 중국이 요구하는 세이프가드의 철회는 응할 수 없으며, WTO 규정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고, 또 정식발동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조사 결과, 최근 수입동향, 국내 산지의 경쟁력 강화 등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JA전중(전국농협협동조합중앙회) 하라다(原田) 회장도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WTO 협정, 일중무역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게 보복조치 철회를 중국측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행 WTO 협정에 의하면 잠정조치에 대해서 상대국은 보복조치를 할 수 없으며, 또 정식발동이라도 발동이후 최초 3년간은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맹국이 아닐지라도 최근 미국, EU와 가입을 위한 양자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금년 중에 가입할 기능이 높아졌다. 때문에 WTO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의 업계는 정부에 대해 잠정발동 취하를 요구하고 는 움직임이 있다. 또, 최근 일본의 주요 산지의 의회와 생산자단체 등은 세이프가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잠정발동을 조기에 정식발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양자간 협의에서 중국의 대일수출 자주규제 약속을 받아내고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일본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향후 양자간에 절절한 타협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 부담스런 장기전으로 갈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돌출행동이 잦아지고 있는 중국과 국민의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고이즈미(小泉) 정부와의 줄다라기는 지금부터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잠정조치를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정식발동으로 연장하거나 현재 정부조사 중 또는 조사요청 중인 품목에까지 세이프가드를 확대할 것인지, 공은 일단 일본으로 넘어와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유기농산물 수출확대 도모

최근 세계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정부 주도의 유기농산물 및 저농약 농산물의 인가제도를 도입하여 세계 시장으로 수출확대를 도모하 있다.

‘녹색식품’ (green food)이라는 것은 북경시에 소재하는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정의에 의하면 “안전, 우량품질, 건강에 좋은 식품(원료 및 가공식품 포함)”의 총칭이다. 이 개념은 유기농산물 또는 저농약 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이다.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의 설명으로는 ‘녹색식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녹색이 환경이나 인간에 유익하며, 생태환경의 보전 및 자연의 이미지가 있으며, 게다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중국이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조류에 부합한 것이다. 다만 그것은 EU(특히 북구제국) 및 미국 등과 같이 민간 유기농업단체(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정부기관)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인증을 실시한다는 이른바 ‘민간주도형’과는 다르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기관인 ‘중국녹색발전센터’가 직접 관리, 지도하여 행정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확대를 강행하도록 한다는 ‘정부주도형’ 인가제도라고 해도 좋다. 또, 다음과 같이 중국의 유기농산물생산 전개는 국내 농업의 재건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유기농산물시장을 노린 일종의 무역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유기농산물은 생산, 환경, 유통조건 등에 대한 요구의 차이에 따라 크게 ‘AA급’과 ‘A급’이라는 2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AA급은 엄격한 생산기준(대기, 토양, 수질, 종자 등의 규정)에 기초하여 생산된 것이며, ‘유기재배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이다. A급은 생산기준이 비교적 덜 까다로

우며, '저농약, 저화학비료 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녹색식품이라는 중국의 농산물은 그 품질기준에 의해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 등 2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99년 4월까지 전국에서 녹색식품으로서 인증된 농산물(가공품도 포함)은 1,018품목이며, 그 내역은 곡물류 219품목, 야채류 144품목, 과실류 129품목, 음료류 202품목, 유제품 151품목, 수산품 11품목, 주류 66품목, 기타 96품목이다. 또, 이러한 1,018품목의 녹색식품 가운데, AA급에 속하는 것은 겨우 22품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996품목은 저농약재배(농산물)에 상당하는 A급이다.

99년 4월 현재, 중국의 녹색식품 총생산면적은 3,569만묘(1묘=200평), 생산액은 494억원이다. 전국의 농산물식부면적의 2.1%와 총생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북경, 상하이, 천진, 남경 등에서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녹색식품시장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녹색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 낮다는 것이다. 현재, 녹색식품의 소비자는 일부의 고소득계층이나 학식자(예를 들면, 대도시의 대학교수, 의사, 정부공무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또, 녹색식품의 중국 국내에서 주요 소비시장이라고 하면 대도시의 고급호텔이나 외국인용 레스토랑, 슈퍼 등이 대부분이다. 그 원인은 녹색식품의 가격이 보통 농산물보다 일반적으로 1.5배에서 2.5배정도 비싸 일반 국내소비자에게는 아직 먼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北京市 東北旺 有機生産農場 담당자는 "녹색식품으로 생산되면서도 사는 측과 연결되지 않아 보통재배 농산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1999년 녹색식품의 수출은 총수출액의 2억달러, 그 가운데 일본시장으로의 수출규모는 약 8,000만달러, 구주시장이 5,000만달러, 기타는 7,000만달러이다. 일본시장으로의 수출규모는 전체의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99년 수출총액(2억달러)은 동기 녹색식품의 총생산액(494억원)의 겨

우 3% 정도에 불과하다. 현시점의 녹색식품 수출규모는 작지만, 생산량으로 보면 잠재적인 수출력은 극히 크다. 최근 현저하게 나타나는 중국산 채소류의 수출증가와 현재 강화되고 있는 녹색식품의 조직유통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녹색식품의 국제시장으로 수출확대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 JETRO, Food&Agriculture, no.2333(2001. 4. 16)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사과가공산업 현황

최근 몇 년동안 중국 산시성의 사과 가공산업은 빠른 발전을 하였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공산업의 이윤은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이 부문의 수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경제적인 효율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국 사과즙 가공업계는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과 경작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과즙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공업은 이미 초보적인 규모를 갖추었다. 사과즙 수출은 사과 주산지성인 산똥(山東)성과 산시(陝西)성의 주요 수출품목이 되었다.

산시(陝西)성의 사과즙 수출량은 1995년 935톤에서 1998년 29,876톤으로 증가, 또 수출액은 1995년 113만달러에서 1998년 1,937만달러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수출물량은 31배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단지 16배가 증가하였다.

수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5개국 위주였으나, 현재는 1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미국에 대한 수출량은 15,880톤, 수출액은 1,054만달러로 산시(陝西)성 사과즙 수출의 53%와 54%를 점하여, 미국은 중국 사과즙의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사과즙 수출은 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효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산시(陝西)성 사과즙 수출가격은 1995년 톤당 1,220달러에서 1998년 648달러로 하락, 수출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

로 떨어졌다.

중국 사과즙 수출물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수출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국제 사과즙 시장이 공급과잉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그 결과 남미, 유럽 등 전통적인 사과즙 생산국과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둘째, 중국의 사과즙 생산공장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산시(陝西)성의 사과즙 공장은 1995년 5개에서 1998년 17개로 증가하였는데, 이 결과 중국 국내시장이 한정적인 가운데 수출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수출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즙생산 기업의 이윤은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덤핑수출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미국의 8개 사과즙 생산기업은 중국의 사과즙 수출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하게 되었다.

자료 : http://www.agrionline.net.cn/zhuanjia/article/shta/qt2.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5)

1. 채소의 가격과 생산동향

1.1. 전체

최근 채소 가격은 일조부족, 한파, 적설 등의 영향으로 입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 2월은 상당히 상승하였다. 3월 이후는 양호한 기후조건과 기온 상승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하가 빨라져 4월에 접어들어 전체적으로는 평년을 하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1.2. 엽경채소

배추, 양배추, 양상추는 일조부족으로 초기생육이 저하되어 크기가 적은 경향이 있으며, 시금치는 주산지인 北關東이 적설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평년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3월에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최근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 수준이다. 한편, 파는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평년을 대폭적으로 하회하는 가격수준이었지만 세이프가드의 잠정발동 후 일정수준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1.3. 과채류

오이, 가지, 피망은 연초까지 평년을 상회하는 가격 수준이었지만, 4월에 접어들어 기온이 높아져 입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수준이다.

표 1 연도별 채소 생산동향

	1996	1997	1998	1999	2000
도매가격(엔/kg)	155	154	195	163	145
생산액(억엔)	22,986	23,090	25,953	22,110	-
식부면적(천ha)	524	514	506	502	-
수확량(만톤)	1,462	1,431	1,364	1,387	-

자료 : 동경청과물정보센타「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부「생산농업소득통계」,「채소생산출하통계」
주 : ⑴ 도매가격은 동경중앙도매시장 지정채소 14품목의 평균가격
⑵ 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 기준 50품목의 합계

표 2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3월 중순			2001년 4월 중순			2001년 5월 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무	103	95	105	64	107	63	57	114	66
당근	100	92	87	157	96	92	113	109	59
배추	149	298	169	69	265	100	55	220	74
양배추	142	122	134	81	99	77	43	93	42
시금치	340	107	94	334	103	71	369	102	77
파	166	71	57	135	71	52	206	94	77
양상추	217	73	100	98	66	47	128	154	91
오이	283	105	85	153	79	58	155	117	80
가지	415	104	96	252	88	68	282	118	84
토마토	403	136	107	318	114	97	220	120	80
피망	599	152	129	343	125	75	226	123	75
감자	108	60	82	133	72	84	130	102	86
토란	213	91	96	180	92	94	208	72	68
양파	102	107	109	93	109	108	85	152	112
신선채소계	185	105	103	136	96	77	124	116	78

자료 : 동경청과물정보센터「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 '평년대비'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1년 2월 19일에 공표 된 재무부 「무역통계」에 의하면, 첫째 2000년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000톤으로 과거 5년 동안 약 1.5배 증가하였다.

둘째, 2001년 1월～4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413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6%이며, 2001년 4월에는 수입량이 감소, 98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6%에 머물고 있다.

표 3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 :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	-	-	72	82
브로콜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무청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가지	0	0	1	2	2

자료 : 재무부「무역통계」

주 :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4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 천톤, %

	4월	대전년동기비	1~4월	대전년동기비
토마토	390	26	3,987	62
양파	18,779	73	101,308	87
마늘	2,017	94	8,423	98
파	2,489	453	15,779	172
브로콜리	6,087	90	25,500	111
결구양상치	226	104	2,139	263
기타양상추	269	116	1,886	260
당근 및 순무	6,687	86	20,840	125
우엉	4,170	76	18,797	84
기타 근채류	283	146	1,022	358
오이 및 가킨	953	214	3,065	157
아스파라거스	2,723	80	9,019	79
가지	203	83	777	77
샐러리	672	81	2,810	121
버섯	20	57	240	116
피망 등	1,865	139	5,810	139
시금치	9		11	1,025
호박	27,669	110	92,012	99
생강	6,053	118	18,712	110
수박	321	41	412	41
메론	4,492	108	12,472	108
딸기	18	46	1,303	129
기타 신선채소	1,142	110	5,972	104
합계	98,013	96	412,805	106

자료 : 재무성「무역통계」

주 : 4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보치는 6월말 공표예정

3. 식물검역 상황

주요 신선채소에 대한 주요 수출국별 수입식물검사실적 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5 식물 검역 상황

단위 : 톤

		2001년4월23~29일	2001년4월30일~5월6일	2001년5월7일~13일	2001년5월14일~20
파	검사수량	338	56	231	162
	합격수량	269	51	186	97
	불합격수량	69	5	44	65
양파	검사수량	3,216	1,918	2,622	1,838
	합격수량	874	335	1,019	539
	불합격수량	2,342	1,583	1,603	1,298
토마토	검사수량	20	18	25	13
	합격수량	20	18	25	13
	불합격수량	0	0	0	0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95	15	112	113
	합격수량	91	15	112	113
	불합격수량	4	0	0	0
피망	검사수량	436	323	683	636
	합격수량	419	300	675	621
	불합격수량	17	23	8	15

자료 : 농림수산부 식물방역소 조사

주 : (1)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의 파,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및 피망 등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2)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3)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그 후 합격이 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표 6 신선채소 수입식물 검역속보(2001. 5. 21-5. 27)

단위 : 톤, 건

품목	수출국	수입항	검역		합격		불합격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파	중국	도쿄항	3	43	1	17	2	26
		요코하마항	4	52	1	9	3	43
		나고야항	3	23			3	23
		오오사카항	4	24	2	7		
		고오베항	1	16	1	16	2	17
		소계	15	158	5	48	10	109
	합계		15	158	5	48	10	109
양파	중국	도쿄항	15	659	13	554	2	105
		요코하마항	10	279	9	231	1	48
		가와사키항	1	20	1	20		
		나고야항	1	0	1	0		
		오오사카항	4	60	4	60		
		고오베항	6	181	5	157	1	24
		모지항	1	2	1	2		
		나리타공항	1	0	1	0		
		간사이공항	1	0	1	0		
		소계	40	1201	36	1024	4	77
	미국	도쿄항	1	73	1	73		
		나하항	1	0	1	0		
		나리타공항	6	0	5	0	1	0
		소계	8	73	7	73	1	0
	뉴질랜드	토마코마이항	1	48			1	48
		도쿄항	7	274	1	24	6	250
		요코하마항	12	666			12	666
		나고야항	6	245			6	245
		고오베항	1	26			1	26
		나리타공항	1	0	1	0		
		소계	28	1259	2	24	26	1235
	합계		76	2533	45	1121	31	1412
토마토	미국	나리타공항	5	6	5	6		
		소계	5	6	5	6		
	합계		5	6	5	6		

표 6 신선채소 수입식물 검역속보(2001. 5. 21-5. 27)(계속)

방울토마토	한국	시모노세키항	3	10	3	10		
		하카타항	1	4	1	4		
		나하항	1	1	1	1		
		소계	5	15	5	15		
	합계		5	15	5	15		
토마토합계	한국	시모노세키항	3	10	3	10		
		하카타항	1	4	1	4		
		나하항	1	1	1	1		
		소계	5	15	5	15		
	미국	나리타공항	5	6	5	6		
		소계	5	6	5	6		
	합계		10	21	10	21		
피망	한국	이시카리만항	1	2			1	2
		동경항	3	26	3	26		
		요코하마항	1	5	1	5		
		오오사카항	4	37	4	37		
		고오베항	1	5	1	5		
		시모노세키항	38	181	38	181		
		하카타항	5	152	5	152		
		나하항	1	3	1	3		
		소계	54	411	53	408	1	2
	네덜란드	나리타공항	46	23	44	22	2	1
		간사이공항	7	4	6	4	1	0
		소계	53	27	50	26	3	1
	뉴질랜드	나리타공항	12	10	11	10	1	0
		간사이공항	8	5	7	5	1	0
		소계	20	15	18	15	2	0
	합계		127	453	121	449	6	4

주 : (1) 수입식물검사를 실시한 수량의 집계이며, 세관의 통관통계의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 「불합격」은 수입검사의 결과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된 수량이며, 살충처리 등 소요의 검역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그 후 합격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3) 본 집계는 속보이며, 향후 수정된 것이 있을 수 있다.

4. 채소 소비

4.1. 미국과 일본의 채소소비 추이

미국의 지난 15년간의 채소 소비량을 보면, 신선채소가 약 20%, 채소 전체는 약 18%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채소소비량은 약 7%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원래 토마토, 감자, 양상추 등의 소비량은 일본보다 많으며, 더욱이 최근 15년간 당근, 피망 등의 소비량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7 미국과 일본 1인당 채소소비량 추이

단위 : kg, %

		1985 (a)	1999 (b))	증감 (b-a)	증감 b/a
미 국	신선채소	72.24	87.17	14.93	+20.6
	가공채소	82.64	95.69	13.05	+15.8
	채소전체	154.88	182.86	27.98	+18.1
일 본	신선채소	62.30	58.10	-4.20	-6.7

자료 : 미국은 미국농업부(USDA) 통계에 의한 소비량
일본은 총무청 「가계조사연보」에 의한 구입량

이처럼 미국에서 채소 소비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①건강 및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고조, ②커트 채소 등 편의성이 있는 상품 보급, ③이탈리안, 멕시칸 등 채소를 많이 이용하는 다양한 요리 보급, ④관민연계로 청과물 소비확대를 위한 '5 a day 프로그램'실시 등에 의한 효과에 의한 것으로 고려된다.

표 8 미국과 일본의 품목별 채소 소비량

단위 : kg

품목		1985(a)	1992	1999(b)	증감b-a
오이	미국	2.00	2.27	3.13	1.13
	일본	4.2	3.7	3.2	▼1.0
양배추	미국	3.99	4.04	3.67	▼0.32
	일본	5.9	5.3	5.0	▼0.9
양파	미국	6.17	7.35	8.44	2.27
	일본	5.0	4.8	4.9	▼0.1
감자	미국	21.00	22.04	21.91	0.91
	일본	4.6	4.4	4.0	▼0.6
토마토	미국	6.76	7.03	8.07	1.31
	일본	3.6	3.7	3.2	▼0.4
가지	미국	0.23	0.18	0.18	▼0.05
	일본	2.1	1.9	1.9	▼0.2
당근	미국	2.95	3.76	6.17	3.22
	일본	2.8	2.7	2.7	▼0.1
피망	미국	1.72	2.59	3.04	1.32
	일본	0.8	0.7	0.8	0.0
시금치	미국	0.32	0.36	0.45	1.13
	일본	2.1	1.9	1.6	▼0.5
양상추	미국	12.25	13.88	14.33	2.08
	일본	1.7	1.8	1.8	0.1

자료 : 미국은 미국농업부(USDA) 통계에 의한 소비량임.
일본은 총무청「가계조사연보」에 의한 1인당 구입량임.

4.2. 캐나다의 채소 소비량 추이

캐나다에서도 채소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9 캐나다의 채소소비량 추이

단위 : kg

품목	1985(a)	1992	1999(b)	증감(b-a)
양파	7.27	6.80	7.75	0.48
감자	67.22	66.25	77.03	9.81
토마토	6.71	6.94	7.53	0.82
당근	7.49	9.47	7.90	0.41
시금치	0.45	0.48	0.62	0.17
양상추	9.51	10.46	10.63	1.12

자료 : 캐나다 농어업부 통계에 의한 1인당 평균소비량임.

주 : 감자는 신선·가공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선과 가공 합계임. 참고로 미국의 감자 신선·가공을 합계 소비량은 85년 55.51kg, 92년 59.23kg, 99년 64.35kg임.

자료 : http://www.maff.go.jp/work/010131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21세기 농림수산분야 IT 전략[1)]

I. 농림수산분야 IT 전략의 필요성

○ 일본 정부는 2000년 11월「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 “모든 국민이 IT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농림수산분야에서 IT는 각종 정보에 근거한 기업적 경영 확립, 유통비용 절감,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등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여, 21세기 농산어촌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 21세기 농림수산분야 IT 전략

1. IT 인프라 정비, 정보의 전자화 추진과 활용시스템의 개발·보급, 그리고 농업인 등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일체적으로 추진

2. IT 활용에 의해 지향해야 할 방향

① 의욕을 가진 농림어업인이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적 경영을 전개한다.

② 유통분야에서 물류 합리화를 도모하여, 생산자·소비자 쌍방에게 혜택이 미치고,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선택 기회를 증가한다.

③ 농산어촌주민이 도시수준의 편의성을 공유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한다.

---

1) 이 자료는 원 자료의 요지이며, 원문(26 페이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Ⅲ. 중점 정책분야

1. 정보의 전자화 추진과 활용시스템 확충

○ 정보의 전자화 추진과 활용시스템 확충 등 공통기반을 중점적으로 개발・보급한다.

⑴ 기업적 경영지원

○ 농업인 등이 각종 정보의 신속・정확한 입수, 地産地消 시스템의 구축, 전자직거래, 정밀농업 등을 추진한다.

⑵ 전자상거래 추진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

○ 신선식료품 등의 유통시스템 개발・실증 등을 통한 유통 합리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한 정보를 제공한다.

⑶ 농산어촌지역의 편의성 향상

○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생활관련 정보의 신속한 입수,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화 등을 도모한다.

⑷ 자원관리의 고도화

○ 농림지 등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정비한다.

2. 농산어촌지역의 IT 인프라 정비

○ 민간주도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 관계 부처와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법에 의하여 IT 인프라를 정비한다.

3. 정보의 활용능력 향상

○ 인정농업자 등에 대한 고도의 정보처리능력(경영분석 등)의 습득 지원 및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 IT 지도인력 확보・육성, 고령자 배려 등을 추진한다.

자료 : http://www.maff.go.jp에서

(이동필 ldphil@krei.re.kr 지식정보센터)

호주 유기농산물 연간 20% 성장 전망

호주의 유기농산물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유기농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금년 3월에 호주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각 주정부에서도 유기농산물 육성대책을 시작하고 있다.

1. 향후 5년간 연간 20% 성장

2월 하순에 캔버라에서 개최된 '전망 2001'(OUTLOOK 2001) 의회자료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을 경원하는 소비자동향을 배경으로 유기농산물의 수요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생산액은 97년 1.5억 달러, 2000년에는 2.5억 달러로 최근 3년간에 1.7배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은 연간 20%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한다.

현재, 가공품을 포함한 유기농산물의 생산자수는 약 2,000명(전체 농장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 식부면적은 약 765만ha(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이다. 식부면적으로는 세계 제1위이지만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전체 농업생산액에 차지하는 유기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채소 및 과실의 생산이 가장 많고, 기타 곡물(소맥, 대맥, 수수 등), 축산물, 향초, 치즈, 와인, 벌꿀 등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타스매니아의 유기생산농가가 유기농법에 의한 블루베리를 원료로 한 와인양조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유기시장 개척을 노린 활동도 보여진다.

호주에서는 92년 OPAC(유기농산물자문위원회)가 '유기 및 바이오다이나믹 농산물에 관한 전국규격'을 수립, 유기농산물에 관한 생산·가공·표시·검사 등의 기준을 정하였다. 이 규격은 국내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에서 주로 수출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97년에는 당해 규격은 연방법 '수출관리법'에 기초한 법적 근거가 주어져 위반자 벌칙이 설정되었다(국내용 기준은 미정비).

현재에는 다음의 7개 단체가 유기농산물 인증단체로 인정되고 있다.
NASA(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BFA(Biological Farmer of Australia)
BDRA(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OHGA(Original Herb Growers of Australia)
TOP(Tasmanian Organic Dynamic Producers)
OVAA(Organic Vignerons Association of Australia)
OFC(Organic Food Chain)

이러한 인정조직은 대부분이 협동조합, 협회 등 비영리단체이며, 전국규격을 기초로 각각의 유기농산물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유기농산물·식품을 생산하는 자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가공부문을 포함한 인정생산자 수를 보면, BFA가 54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NASA의 483, OHGA의 436이다(1999년).

2. 유기농산물의 성장과제

유기농산물이 장래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제도 많다.

⑴ 해외에서 수요가 많지만 생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수요량에 대응할 수 없다.

⑵ 국내에서 소비자층이 비교적 특수한 수요에 한정되어(건강지향, 환경보전옹호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등), 국내수요가 부진하다.

⑶ 유기농산물지향은 생활양식이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며, 유기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수의 증가가 완만하다.

⑷ 생산농가, 도소매업자, 수출업자 등의 통일,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⑸ 유기농산물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대응이 부족하다(농업연구・개발공사의 유기농산물에 관한 예산액은 연간 약 25만달러).

또,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시장 공급용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전국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인증조직으로의 등록의무도 없으며, 유기로 속여 국내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생산자가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호주유기연맹이 산업전략계획 수립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유기농산물을 중요한 농업의 일부분으로서 성장시킬 것을 목적으로 생산농가,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수출업자의 전국단체인 호주유기연맹(OFA)이 작년 12월 '6개의 핵심부분으로 성립되는 2006년까지 향후 5개년 산업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전체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산물의 생산량, 소비량 및 유기생산자의 비율을 각각 4%까지 확대한다.

⑵ 생산자, 도소매업자, 수출업자 등의 통일, 단결을 도모한다.

⑶ 유기농법을 연방정부의 자연자원관리정책 및 환경관리정책과 연계시킨다.

⑷ 수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한다.

⑸ 국내용 유기생산자의 규제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확립한다.

2001년 10월에는 전국 16개소에서의 관계자와 네트워크연구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또, 지금까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각 주정부도 유기농산물의 육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특히, 빅토리아 주정부는 유기농산물의 연구개발비로 연간 26만달러, 서호주 주정부는 15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퀸즈랜드 주정부도 산업포럼을 설립하는 등 유기농산물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호주 농업은 윤작체계가 확립되어 사용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에 가까운 농법도 많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하여 호주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시스템을 급속히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자료 :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인터넷으로 농업비즈니스 확대

미국에서 인터넷에 의한 비즈니스 물결은 농업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목축 및 유기농산물 등에서 성공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기존 농업비즈니스를 재구축 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소규모생산자에게는 유통장벽 타파 및 판매비용 감축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소규모농가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확대

1999년에는 판매액 전체의 2% 이었던 농업관련 전자상거래가 2000년은 4%, 2001년에는 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 및 식품유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미국 농업부(USDA) 조사에 의하면, 60만을 넘는 미국 농업목축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주별 자료는 없지만 텍사스주 정부는 서부, 중서부 및 텍사스주를 포함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전자상거래액은 전체의 55%에 달하며, 텍사스주가 농업분야에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지역의 하나라고 한다.

또, 온라인거래를 실시하는 농가는 총매출이 25만달러 미만의 소규모농가가 많으며, 그 비율은 온라인거래 전체의 6할에 달하는 등 소규모농가에서 효율적인 비즈니스 수단이 되고 있다.

2. 가축수송비용 절감을 실현

텍사스주에서 주목되고 있는 농업전자상거래의 하나로 목축관계가 있다. 목축관계 전자상거래는 판매에 필요한 정보가 마우스클릭 하나로 입수할 수 있는 편리함과 가축의 수송빈도를 감소하여 수송비 및 수수료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 또, 수송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 양호한 건강상태를 지키는 이점도 크다.

텍사스의 농업경제학자 아니 데이비스씨는 “인터넷에 의한 주내의 가축판매는 월 2만두에 이르며 향후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목축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가축판매만이 아니라 농가 및 목장의 일용품 구입방법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주 농업부 장관 수잔 콤즈씨도 농업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는 뛰어난 제도이다. 벌크 상품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포장 상품도 같은 형태이다. 현재에는 인터넷과 비디오 양쪽에서 가축판매가 가능하다. 웹사이트를 통한 비즈니스는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3. 대형 트럭단위 거래에 문제

포토와즈의 ‘프로듀서즈 비디오 옥션’(Producers Video Aution) 社는 99년에 위성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경매를 시작한 이래, 매출액은 20%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구입자가 가축의 비디오를 보고 실시간으로 경매할 수 있는 네트 옥션을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각 회 5,000～8,000두를 취급하고 있다. 포토와즈의 담당자는 랩탑 컴퓨터와 디

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각 목장을 방문, 가축설명용 데이터를 기입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전자메일로 본사에 송신한다. 이 회사는 1두당 8달러의 정액 요금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빅토리아의 '카우존 닷컴'(CowZone. com) 사는 보다 소규모 기업용 사이트이다. '프로듀서즈 비디오 옥션'사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축산농가의 판매용 가축리스트를 설명서를 첨부하여 게재하고 있다. 게재기간은 90일간으로 축산농가와 구입자가 직접 매매 교섭을 한다. 이 회사는 작년 가축반송업자와의 제휴, 멕시코 축산농가와의 링크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이 회사의 짐 하트만 사장은 "당초에는 문제도 발생하였지만 웹사이트를 개선하여 현재는 사이트 방문수가 4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지만 장차 1건당 10～12달러 정도의 등록비를 고려하고 있다.

단지, 현시점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가축시장은 100두 정도의 대형트럭단위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가축시장에 접근하는데 충분한 규모의 텍사스주내 목장은 약 6%에 불과하다. 아니 데이비스씨는 "텍사스주 육우업자의 92%는 사육두수 100두 미만인 한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대형트럭단위 거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축산농가의 가축을 모아서 대형트럭단위로 거래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현재 거래형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 유기농산물거래가 성장

텍사스주에서 목축과 함께 주목되고 있는 것은 유기농산물 등 틈새시장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다.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에 본거지를 둔 '홀 푸즈'(Whole Foods) 사는 유기농산물 등 건강식품슈퍼로서 인기가 높고, 인터넷을 사용하면 유기재배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로컬 하베스트 닷컴’(Local Harvest. com) 사는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83호의 텍사스 농가를 포함한 전국 3,300 농가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산자에 관련된 일반정보, 판매정보, 상품리스트, 생산자 웹사이트 링크 등이 게재되고 있다. 일반 가정과 계약하여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매주 제공하는 ‘컨슈머 소포트 애그리칼춰’(Consumer Support Agriculture)에 진출하는 농가리스트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회원농가의 농작물판매 확대 및 서비스 촉진 외에 농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기존 유통네트워크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5. 인프라 확충하여 농업비즈니스 재구축

인터넷에 의한 농산물 판매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의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농업비즈니스를 재구축 하여 비즈니스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장점도 크다. 농촌지역에서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코스트 퍼포먼스가 높은 접근,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 무선광역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으면 도시수준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무선광역 네트워크에서 동떨어진 지역은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며, 디지털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은 그 정도로 방대한 것은 아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모든 농촌지역에서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농업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기대된다.

자료 : JETRO, Food&Agriculture no.2337(2001. 5.1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축산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1. 하원 농업위원회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제언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에서는 작년 3월 이후, 차기 농업법 제정에 참고로 하기 위해 주요 산지의 생산자 및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왔다. 공청회는 의회의 회기가 바뀐 2001년 이후도 계속해서 실시되어, 각 단체가 보다 구체적인 농업정책의 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관계단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1. 전국우유생산자연맹(NMPF)

96년 농업법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시황의 하락으로 연기되어 온 가격지지제도에 대해서 차기 농업법 실시기간 중, 100파운드당 9.90달러의 지지수준도 포함해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 또 연방 밀크마케팅오더(FMMO) 제도에 근거, 등급 3(치즈용) 및 4(버터, 유지분유 등)의 우유가격에 대해 100파운드당 11.08달러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이것을 하회하였을 때에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NMPF는 이 2가지 조합에 의해서 생유생산자에 대해 대폭적인 가격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이프티네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1.2. 전국돈육생산자협의회(NPPC)

NPPC는 시장지향을 강화한 현재의 농업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작물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일례가 비교적 높은 론레이트를 배경으로 하여 대두로 식부가 전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PPC

는 사료가격의 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대두의 론레이트를 2할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돈업계에서는 대두와 비교해서 옥수수를 사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격의 하락이 업계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또, NPPC는 사료작물업계가 이득을 얻어(가격이 비싸지고), 그 반동으로 축산업계가 불이익을 입는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경영규모에 불구하고 모든 생산자가 보조의 대상이 되는 제도를 설정할 것, 국제경쟁의 격화에 비추어 시장접근계획(MAP)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를 확충할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1.3. 전국육우・쇠고기생산자협회(NCBA)

NCBA도 NPPC와 마찬가지로 축산업계의 특성상 다른 농산물업계가 이익을 누리는 정책에는 반대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서 생산조정의 강제, 곡물 보관경비에 대한 생산자보조, 젖소매상에 의한 생유생산조정(85년 농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조치와 같은 종류의 것)등을 들고 있다. 또, 환경정책이 차기농업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역행된 경우 생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술지도인력 증원, 토양・수질・야생동물 등에 관한 조사연구비의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가축병원 등의 연구조사, 감시체제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2.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

하원 농업위원회의 컨베스트 위원장(공화당, 텍사스주)은 공청회의 결과 등을 참고로 7월 초순에는 차기 농업법 가운데 농산물 프로그램에 관한 법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원 루가 농업위원장(공화당, 인디아나주)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걸쳐 이러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하는 있으며, 더욱이 이 위원회의 소수당 리더인 하킨 의원(민주당, 아이오와

주)은 금년 중에 차기 농업법의 제정은 곤란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3. 베네만 농업부 장관도 기본적인 과제 언급

한편, 행정부측에서도 베네만 농업부 장관이 민간조사회사의 회의에서 차기 농업법의 향방성에 대해서 언급한 정도로 하원 농업위원회가 유일하게 선행하고 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또, 베네만 장관은 연설에서 생산자보조는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로 인해 가격상승이나 경쟁력저하로 연결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차기 농업법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과제로서 생산자지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출 가능한 농업예산 수준,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의 정의, WTO 협정과의 정합성, 환경보전프로그램의 역할 등을 들고 있다.

자료 : 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1/jun/top-us02.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 채소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5월 초에 실시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공청회에서 채소·과수단체가 차기 농업법에 요망하였다. 채소·과수생산자를 대표로 한 미국 청과물협회(United Fresh Fruit and Vegetable Association, 스텐젤 회장)가 의견을 제시하고, “채소·과수생산자는 다른 작물처럼 국내지지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하였다.

1.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닌 수요·소비확대대책 요망

작년 9월 이후, 미국 24개 채소·과수단체에 의한 부회를 설치하여 정리하였다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⑴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전체의 수요 및 이용방법, 소비를 확대·촉진

⑵ 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충

⑶ 국민의 식생활개선·건강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채소·과수의 소비확대대책.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 및 보건센터에 공급프로그램, 채소·과수에 한정한 푸드스템프(저소득층 식료무상제공)발행을 제안

⑷ 채소·과수의 수출촉진. WTO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을 한층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진흥프로그램, 식료원조프로그램의 증액을 제안

⑸ 병충해대책 강화. 수입검사체제 강화 및 피해발생시 긴급대책기금 창설을 제안

⑹ 연구예산 증액. 소비촉진, 환경보전(채소·과수생산에 의한 공기청정

효과의 양적 시산 등), 품질・생산기술향상, 병충해예방을 위한 연구를 확충

⑺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채소・과수의 다양성・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할 것. 자연재해 등 생산자 및 시장의 힘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리스크부분을 「중화」하는 한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 예를 들면 가격지지 및 생산을 자극하는 정책은 지양

⑻ 채소・과수의 轉作규제는 계속[2)]

⑼ 농업수입의 20%까지에 대해서 5년간 납세유예를 인정하는 리스크매니지먼트계정 창설

⑽ 소매부문에서 자본집중을 우려. 생산자 등으로의 영향조사 및 반트러스트법의 강화

⑾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에 대한 자동발동형의 제재권한을 통상대표부(USTR)에 부여

⑿ 반덤핑조치를 강화(버드수정조항[3)]의 전면실시)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야채・과수는 직접지불 및 마케팅론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하지 않는가",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총액 15억달러의 채소・과수의 수입안정정책을 요구했지만 거기에도 반대하는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스탠젤 회장은 명확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작물보험에 대해서도 정부보조는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을 자극한다"라며

---

2) 현행 농업법에서 정부지불을 받는 곡물 등의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산이 인정되지만 채소・과수로 작목전작을 하는 것은 규제되고 있다.

3) 작년 11월에 성립한 버드수정조항(Byrd Amendment-1930년 관세법의 수정)은 반덤핑관세 등에 의한 수입을, 피해를 입은 국내생산자 등으로 직접배분을 인정하는 조항. 외국에서의 덤핑수입에 대해 관세에 의한 억제 및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이중보호를 국내산업에 미치게 되며, 반덤핑소송 증대, WTO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 외에 WTO룰(반덤핑 조치는 덤핑량을 한도로 한 관세만을 인정한다)에 위반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비판받고 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채소・과수생산자는 특수작물생산자로서 '틈새시장'이 대상이라고 스스로 위치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수급균형 및 시장에 의한 건전한 가격형성메커니즘이 붕괴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에게 마이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곡물 등의 생산자에 대한 '고정지불', '마케팅론', '수입보험 등의 세이프티네트' 등 국내지지정책에 대해서 모두 '생산자극적'이며, '시장왜곡적' 이라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또, 채소・과수라고 해도 미국 각주・지역에서 300가지 품종이 있으며, 수출지향 품목과 수입문제를 안고 있는 품목과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수요・소비확대대책을 강조하는 이번 제안은 채소・과수 전체의 '최대공약수'라는 견해가 있으며, 특정품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응해야 한다"(미국청과물협회간부. 공청회와는 다른 발언)라는 내부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사과, 아이다호주 감자, 아리조나주 레몬, 캘리포니아주 아보카도 등의 생산자단체는 미국 최대의 농업단체인 '미국농업연합회'(AFBF)와 함께 금년 중에 5억달러의 긴급직접지불을 정부・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資料：JA全中, 「國際農業・食料レタ-」, no. 72(2001. 5)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캐나다 해외 구제역으로 식육산업 수익증대

지난 수개월간에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이 캐나다의 식육수출업자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산 식육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건강지향적 유럽소비자가 안전한 식육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축산업계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가 해결된다면 EU로의 식육수출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구제역(food-and-mouth disease, FMD)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대, 수십 만두의 가축이 도살 처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질의 식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제역에 대한 우려로 국제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산 식육의 수요는 없어 이것이 캐나다가 축산물을 수출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당국은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제역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이어 유럽산 식육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더욱이 캐나다는 3월 중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아르헨티나의 식육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구제역은 인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지만 우제류 가축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병에 감염된 가축의 입과 발굽에 수포가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발생으로 유럽에서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십 만두의 가축을 도살처분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축산물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안전하고 양질의 식육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캐나다가 세계 3대 식육수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축산업에서 성장호르몬 사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것이 EU에 대한 식육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축에 성장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양방법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르몬제 사용식육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고있다. 때문에 캐나다가 EU용 식육수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 또는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캐나다산 육우와 돼지 가격은 과거 최고수준까지 상등하고 있다. 가격상승의 원인은 미국 국내에서의 수요 증가와 유럽의 광우병 및 구제역 만연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다. 향후, 세계 식육가격은 광우병 및 구제역으로 인한 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결과 비교적 하락하고 있던 돼지가격이 예상외로 상승하고 있다.

자료 :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영국 농가에 농업통화보상금 지불

구주위원회는 영국의 목축농가에게 2억 유로가 넘는 농업통화보상지불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 보상지불은 원래 통화 변동에 수반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지급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라는 의미가 강하다. 단, 지급액의 절반 이상은 영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영국에서 축산부문을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구주위원회는 2억 유로를 넘는 농업통화보상(agrimontary aid)을 영국 농가에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구주위원회의 프란츠 피슈라 농업담당 위원은 “이 보상지불은 통화 변동에 의해 축산농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지급은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영국 농가의 구제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 영국정부의 부담

영국은 과거 3년간 이러한 보상지불의 수급자격이 있었지만 이러한 지불의 수급요청을 보류한 적이 적지 않다. 농업통화보상지불을 수급하면 그 복잡한 규칙에 따라 해당가맹국 정부도 그 지급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영국의 경우 공통농업정책(CAP)에서 ‘특별한’ 지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분을 영국의 연간 '반환금'에서 공제된다. 이 때문에 영국 재무부는 결국 EU 보상지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2. 복수의 지원프로그램 합계

이번 농업통화보상지불 2억 1,300만 유로(이 가운데 1억 1,800만 유로는 영국정부가 부담)는 통일통화 유로가 탄생한 1999년 1월이래 계속되는 통화 파운드화 인상, 유로화 인하의 보상으로서 양, 우유, 쇠고기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이번 영국에 급부되는 것은 1999/2000년도 통화변동이 대상이 되는 다년도 지불의 제2회 급부분과 2000/01년도와 같은 지불에서 제1회 급부분을 합친 금액이다(표 1 참고).

표 1 영국 농가에 지급되는 농업통화보상지불

단위: 100만유로

보상지불 종류	총액	EU부담분
2000년 1월 양 장려금 제2회 급부	23.4	23.4
1999년 우유가격 보상 제2회 급부	22.4	11.2
2000년 우류가격 보상 제1회 급부	104.6	52.3
2000년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가격보상 제1회 급부	54.2	27.1
2001년 1월 양 장려금 제1회 급부	8.1	4.0

자료 : 구주위원회

자료 :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시행지침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다. 농지를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여러 범주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LFA)에 대한 직접지불계획을 소개한다. 2001년부터는 새로운 구릉지대 농장 직접지불계획에 의거 영농면적에 따라 농민에게 보상금(compensatory allowances)이 제공된다(축산에 대한 직불은 2000년도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실시).

1. 목표

조건불리지역의 토지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산간지대 환경에서의 영농활동을 보존한다. 토지를 농업 용도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돕는 지원을 통해, 산간지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fabric) 유지에 기여한다.

2. 직접지불

보상금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근거로 집행될 것이다.

⑴ 자격요건을 갖춘 초지에 대해 ha 단위로 '기본 지역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연적 장애와 불리함의 정도를 반영하여 4가지로 범주화된 토

지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액 책정(아래의 표 참조)

⑵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5개의 선택 사항 제시, 한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본 지역의 직접지불금 10% 증액 지급,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20% 증액 지급

○ 숲 또는 경지를 일정비율로 유지하여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할 것
○ 소와 양의 혼합사육(최소 15%의 가축단위는 소로 구성되어야 함)
○ 유기농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가축 밀도를 1.2LU/ha 미만으로 유지할 것
○ 가축 밀도를 1.0LU/ha 미만으로 유지할 것

표 1 구릉지대 토지 분류별 지원금액

단위 : £/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06
황무지	13.02	11.91	11.76	11.27	9.39
공유지	13.02	11.91	11.76	11.27	9.39
기타 불리지역(DA)	18.60	17.03	16.80	16.11	13.42
기타 심각한 불리지역(SDA)	34.40	31.49	31.08	29.80	24.82

자료 : 영국 농림부, ERDP 2000-2006

3. 지급 요건

⑴ 농민은 최초 보상금 지급 이후로 5년간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여기에는 의회 규정 950/1997과 그 선행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⑵ 생산자는 사용 금지된 투입재에 대한 의회 규정 1257/1995의 14조 3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⑶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에서 최소 0.15LU/ha의 가축밀도로 양 또는 소를 조방적으로 방목하는 생산자에게만 직접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농업환경 정책이나 기타 공식적인 환경정책의 요구로 인해 더 낮은 가축밀도로 사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⑷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란 영국의 조건불리지역 내에 위치하며 공동농업정책의 통합행정관리체계(IACS) 지역 보조의 목적에 합당한 초지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토지를 말한다.

⑸ 생산자들이 직접지불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영농실천(Good Farming Practice)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⑹ 직접지불 신청자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최소 10ha 이상의 토지에서 영농해야 한다.

4. 과다보상을 막기 위한 조항(15조 1항)

특정 경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토지는 배제하고 있다. 즉, 양이나 젖먹이 소를 조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농이나 기타의 가축 생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5. 지원 금액

황무지나 공유지 범주에 드는 토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적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체로 대농들이 점유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15조 3항에 따라 ha당 25euro 미만으로 정한다.

또, 지역에 기초한 직접지불금액을 체감한다. 전체 기본 지역에 대한 지불금액은 자격요건을 갖춘 조건불리지역 토지 최초 350ha에 대해 지급될 것이다. 직접지불은 그 다음 350ha에 대해서는 그 반액의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700ha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재분배와 안전망

사육두수에 기초한 직접지불에서 토지면적에 기초한 직접지불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갖춘 많은 농민들이 2000년도에 수혜 받았던 직접지불금액에 비해 상당 정도 낮은 금액을 지불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농민들이 스스로 구조조정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망' 메카니즘을 통해 농민들이 2001년도에는 최소한 2000년도의 지급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2002년도에는 80%로 축소되고, 2003년도에 가서는 50%로 줄어들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구릉지대 농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농촌개발프로그램 중 기타의 여러 지원계획을 통해 더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EU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지침

1. 새로운 지침의 마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월 6일 농업 생산품을 판촉 광고하는 데에 있어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방침 결정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지닌 특산품의 지역적 기원을 판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홍보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침 결정은 어떤 경우에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중소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상품들의 최대 50-70%까지에 대해 지원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방침은 2002년 1월 1일부로 브뤼셀에 있는 농업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통해 발효가 공지될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국가 지원 시책에 적용될 것이다.

EU 농업위원장 프란츠 피슐러는 이 조치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광범위하게 고품질 식품들, 특히 지리적 기원을 지닌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EU의 다양한 고품질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제고시키려 하는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잘 부합한다.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다. 이 제안은 그러한 생산품들을 합당하게 마케팅하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이 점차 더욱 수요하는 것들, 즉 품질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 새로운 지침의 내용

2.1.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고품질 생산품들이 표준 생산품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분명하게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것들을 판촉 광고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국내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서도 안되며 소비자들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공적 자금이라는 수단으로 어느 농촌을 광고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고품질 생산품이나 중소규모의 경영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생산품 홍보 캠페인이 해당 회원국이나 생산 지역과는 별개로 일어나고 생산품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메시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 캠페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허용될 것이다. 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낯선 생산품을 더욱 잘 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광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미 오늘날 그런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규칙이 철폐되지 않을 때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생산품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품질을 칭찬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산이나 독일산 또는 스페인산 상품만을 소비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2.2. 지리적 기원

공공적 광고가 EU 회원국들의 소비자들이나 생산 지역을 겨냥한 것일 때, 생산품의 기원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원에 대한 내용은 생산품의 품질을 알리는 정보에 비하면 2차적인 것으로 남겨져야 한다. 이것에 실패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생산품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별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

동과 관련된 규칙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U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지리적 기원의 보호 표시(원산지 보호 표시 - PDO, 지리적 보호 표시 - PGI, 전통 특산품 인증 - TSG)'를 획득한 생산품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대개의 경우에는 해당 생산품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광고 캠페인을 일으키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그 기원이 부착된 표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반대하지 않는다.

2.3. 품질 관리

국가적 수준에서의 품질 관리 계획은 생산품에 요구되는 품질을 부여하거나 요구되는 생산과정을 갖추도록 하는 내부 정책목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생산품들이 주어진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러한 계획에의 접근기회가 그 기원과는 무관하게 EU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서 수행된 바 있는 품질 관리의 결과들을 비교하고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비즈니스 캠페인을 광고하는 것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 채로 남아있다. 캠페인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포도주나 치즈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더욱 넓은 범위의 생산품 군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서는 1986년에 작성되었던 기존의 문서를 대체한다. 이 방침은 제 3국에서 수행되는 광고 캠페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EU 유전자변형작물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럽 시장에 유전자 변형 작물(GMCs)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그 후 유전자 변형 작물의 도입과 그 재배상의 변화 양상은 나라마다 달라졌다. EU 농업위원회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확산과 분포에 대해 농식품 부문의 공급사슬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1. 세계 유전자 변형 작물 식부 지역

유전자 변형 작물은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의미있는 최초의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199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식부면적 260만 ha). 1996년 이후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면적은 급속히 확대되어 1999년에는 4150만 ha에 이르게 된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재배되었는데, 미국이 전세계 유전자 변형 작물 식부 면적의 70%를 차지하였다. 아르헨티나가 14%, 캐나다가 9%로 그 다음 순서를 이룬다. 1999년의 유전자 변형작물 식부면적 4150만 ha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콩 53%, 옥수수 27%, 면화 9%, 평지 8%, 감자 0.1%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0년 들어서는 식부면적이 4500만 ha로 약 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 작물별 식부면적 분포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바이오테크 기업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의학과 작물보호에 활용했던 경험을 축적한 기업들은 이제 농업을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의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생명과학 부문에서는 급격한 응집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농식품 부문 공급사슬의 전방에 집중되어 발전해왔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작물보호 분야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자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 1 작물보호제 판매 상위 10개 농화학 회사들의 매출액

단위 : 100만 US $

순위	회사	1998	1997	1996
1	Novartis	4124	4199	4068
2	Monsanto	4032	3126	2555
3	DuPont	3156	2518	2472
4	Zeneca	2895	2673	2638
5	AgroEvo	2384	2366	2475
6	Rhone-Poulenc	2286	2218	2203
7	Bayer	2248	2283	2350
8	American Cyanamid	2194	2119	1989
9	Dow Agrosciences	2132	2134	2010
10	BASF	1932	1913	1536

자료 : 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표 2 세계 10대 종자회사의 매출액 (1997년)

(1) DuPont /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미국) 매출액 : 18억 달러 * DuPont은 Pioneer Hi-Bred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2) Monsanto (미국) 매출액 : 18억 달러 * 1998년 10월 시점에 Monsanto 사의 종자 판매량으로부터 추정
(3) Novartis (스위스), 매출액 : 9억 2800만 달러
(4) Group Limagrain (프랑스), 매출액 : 6억 8600만 달러
(5) Advanta (영국 및 네덜란드), 매출액 : 4억 3700만 달러 * AstraZeneca와 Royal Van der Have 사가 소유한 회사임
(6) AgriBiotech, Inc. (미국), 매출액 : 4억 2500만 달러
(7) Group Pulsa / Seminis / ELM (멕시코), 매출액 : 3억 7500만 달러 * Pulsa는 Empresas La Moderna를 소유하고 있으며, Seminis, Inc.의 대주주 회사임
(8) Sakata (일본), 매출액 : 3억 4900만 달러
(9) KWS AG (독일), 매출액 : 3억 2900만 달러
(10) Takii (일본), 매출액 : 3억 달러

자료 : 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채택한 농민들은 상당한 제약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종자는 계약에 따라 판매되고 재배된다. 이 종자들은 종래의 일반 종자들보다 더 값이 비싸며, 어떤 경우에는 수확 후 종자를 보관하는 일이 금지되기도 한다. 집중과 제약이 심화된 결과, 농민들은 제한된 숫자의 작물보호용 투입재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북미와 아르헨티나의 농민들은 신속하고 대량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도입했다. 이것이 농장 수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앞서 언급한 제약들을 상쇄할 만큼 편

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는가?

3. 농민들의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농민들이 그것들에 대해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실제로 농장에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수익성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요인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시의 편리함이다. 특히 제초제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자 조작된 작물의 경우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편리성은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켜주고 작물-특정적인 노동력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

표 3 유전자 변형 콩과 일반 콩 재배시의 소득 비교

작물	수확량 (t/ha)	종자비용 (Euro/h)	총비용 (노동/토지 제외) (Euro/ha)	재배면적당 수입 (Euro/ha)
유전자변형 콩	3.295	57	254	320
일반콩	3.430	42	274	322

자료 :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익성은 장기간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수확량과 가격 면에서 매년 큰 폭의 변동이 존재하고 이 변동폭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효과와 분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 공급사슬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더욱 많이 재배할수록, 이는 수요 측면, 특히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국가들에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소비자와 소매상

북미와 EU의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 보이는 관심의 차이는 소매상의 판매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소매상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닌 식품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반면에, 북미의 대부분의 소매상들은 “일단 두고 보는” 전략을 택한다. EU 소비자와 소매상들의 이 같이 엄격한 태도는 식품 공급사슬의 전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EU 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도 영향을 미친다.

EU에서는 식품가공업자가 채택하는 우선적인 전략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부 상인들과 가공업자들이 분화된 수출(또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들을 분리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5. 아이덴티티 보호(IP)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

EU의 규정에 따르면, GMO의 맥락에서 아이덴티티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접근방법에는, ①특정한 유전자 변형의 특성을 지닌 것들에 대한 자발적 아이덴티티 보호, ②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자발적 아이덴티티 보호, ③유전자 변형 상품에 대한 강제적 아이덴티티 보호(추적가능성)의 세 가지가 있다.

표 4 미국과 EU에서의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통 승인 현황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된 품종수		시장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		
옥수수	11	35%	4	5	○ 한 가지 품종은 이미 수입 및 가공이 허용된 상태 ○ 두 가지는 동일한 유전자 변형작물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
콩	3	5%	1	없음	
평지	3	15%	4	3	○ 한 가지 품종만 미국의 것과 동일

자료 : 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아이덴티티 보호는 상품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식품 공급 사슬 전체에 걸쳐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상품과 아이덴티티 보호 체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작물에 따라 6-17%(5-25 Euro/t)의 산지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염에 대한 허용치이다. 식품 공급사슬 전반에 이 비용을 분배하는 것은 많은 요인들, 특히 가격에 대한 시장의 반응, 대체제의 유무, 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유전자 변형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의 시장 차별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수요와 공급의 규모,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식품에 더욱 제한되어 있는 대체재 시장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농민들은 현재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콩과 옥수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 콩과 옥수수는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상품이다. 유전자 변형된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국가들은 주요 수출국들이다. 반대로 콩, 옥수수, 그리고 관련 상품들의 주요 수입국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해왔다. 만일 유전자 변형된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사료에 대해서도 그러한 입장이 채택된다면 시장에 대해 지니는 함의는 매우 중대하게 될 것이다.

자료 : EU/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EU의 농업부문 전자상거래 발전 전망

1. 유럽의 농업부문 전자상거래 현황과 전망

유럽에는 현재 약 1억 8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터넷 해득률은 34%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스웨덴의 65.2%, 영국 45.6%, 프랑스 31.6%, 포르투갈 11.45에 이르기까지 나라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비교를 위해서 다른 대륙의 나라를 살펴본다면, 북미의 경우 49.2%이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 0.8%이다.

2001년 경에는 25,000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 중 약 1000-1500개 정도의 식품과 농업에 관한 사이트가 운영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약 90,000명의 농민들이 www.Farmbid.com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들 중 10%는 그 운송범위가 국제적이다. 미국의 또다른 사례로는 www.XSAg.com을 들 수 있는데, 첫 해에 10,000명의 농민들이 가입하였다. XSAg.com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농민들 중 7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www.AgEx.com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웹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국 농민들은 젊은 연령대이며 스스로 농업 사이트만을 웹서핑하는 농민들은 약 1/3에 불과했다. 그리고 농민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시간 정도를 웹서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농업 사이트들 중 하나인 “FOL Agriculture”에 거의 18,000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가입되어 있다. 그 가입자들 평균 60-70% 정도가 하루에 최소 한번 정도는 사이트에 접속하며, 접속하면 최소한 7-8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농민들 중 95%가 FOL을 포탈사이트로 활용하고 있다. FOL이 제공하는 다운로딩은 한 달에 150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이트 ”@grivulture Online”은 한 달에 약 300만 페이지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농업 부문에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지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자체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부문의 개별 비즈니스들이 인터넷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요구된다. 아일랜드 농민들 중 최소 50% 정도가 향후 10년 내에 컴퓨터를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

EU에서의 상거래 규모는 2005년에는 총 19억 600만 달러로 전 세계 상거래 규모의 1/3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EU에서의 온라인 상거래는 2005년까지 2억 527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치는 미국에서 관찰된 증가율을 토대로 한 것이다. 유럽이 미국과 유사한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2005년까지는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의 상거래 중 14%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자료: Paul Willson, Commission of Agriculture, EU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자유아카데미)

EU의 농업부문 리스크관리 수단

EU 집행위 농업위원회에서는 올해 들어 유럽의 농민들이 직면하는 리스크의 유형들과 그 리스크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보고서의 목적은 리스크에 노출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EU 회원국들과 북미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 개입과 정책수단들의 목적과 논리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특히 농업 보험에 대한 자료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들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1. 농업 리스크의 유형

농업부문 리스크는 크게 가격 리스크와 생산 리스크의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가격 리스크가 무역 자유화 경향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는 한편, 생산 리스크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대, 기후 변화, 가축이나 작물의 성장과정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두 유형의 리스크 모두 농업의 전문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커지고 있다. EU 통계사무국(Eurostat)의 자료들을 통해, 가격과 수확량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노출 정도는 지역과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농민들이 활용가능한 리스크관리 수단

유럽 농민들이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1. 농장 관리 전략

리스크에의 노출 정도가 낮은 작목 선택(예컨대, 공공부문의 개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목), 생산주기가 짧은 작목 선택, 유동성 또는 다양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생산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통계자료로 볼 때 유럽 농업은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농업생산 다양화 전략을 택해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전문화되지 않은 농장의 비중은 32%에서 17%로 줄었다.

2.2. 리스크 분산 전략

마케팅이나 생산 계약을 통한 리스크 공유, 수직 통합, 선물시장에의 상장, 뮤추얼 펀드나 보험 가입 등.

2.3. 농외소득원을 통한 소득원 다양화 전략

2.4. 공공 지원(재해 보상)에의 의존

이상적으로는, 시장이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장이 제공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시장과 보험시장이다.

선물시장은 단기 가격 리스크를 줄이도록 돕는 동시에 가격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EU의 선물시장 거래 물량은 미국에 비해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다. 선물시장의 성장이 더딘 것은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데에는 노하우와 인프라의 측면에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농업정책이 유도한 가격 안정성으로 인해 유럽 선물시장의 발전이 저해된 측면도 있다.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의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과 여타의 시장을 토대로 하

는 리스크 관리 수단들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스크가 당사자 개인과 거의 관계가 없고(리스크로부터의 독립성), 농민들과 보험사가 발생한 리스크의 유효성에 관하여 유사한 정보를 지니고 있을 때(정보의 대칭성), 보험을 통해 생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의 고전적인 사례가 우박피해이다.

3. EU 회원국들과 북미권 국가들의 농업보험체계

EU 회원국들과 북미권의 국가들에서 농민들이 생산 리스크에 노출되었을 때 도울 수 있는 농업 보험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국가마다 보험계약 범위 내의 위험 규정, 공공부문의 개입 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하다.

그리스의 농업보험은 공적 시스템이다. 국가가 직접 공적 보험 조직을 통해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증한다. 민간 부문의 역할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농업보험은 '공공-민간 파트너쉽' 시스템이다. 국가는 보험 약정금을 보조하고 재보험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보험 프로그램 운용을 책임지고 리스크 부담에 기여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농업보험은 민간 형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네 국가들은 보험 약정금에 대한 보조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이 보험 약정금에 대한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미국에는 광범위한 작물 보험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의 개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1) 보험 약정금 보조

(2) 민간 보험부문의 운용 비용의 부담

(3) 민간부문의 획득 비용에 대한 상환

(4) 재보험의 제공 등.

목초를 제외한 전체 경종 작물 재배 면적의 2/3 가량에 대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1998년에는 상당한 정도의 긴급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캐나다에는 작물 보험 프로그램(CI), 농민을 위한 저축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NISA),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평균 농가소득의 70%까지 보장해주는 비주기성(anti-cyclical) 소득 안전망이 존재한다.

4. EU의 리스크관리정책 적용에 관한 논의

EU의 모든 회원국가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농장 외 민간 부문 수단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어떤 수단들은 성숙단계에 도달하였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주로 우박피해 보험). 반면에 다른 수단들은 아직 잘 발전되지 않았다(선물시장, 옵션시장, 뮤추얼 펀드). 어떤 보험 시스템들은 민간 부문에 의해 운용되는 반면에, 다른 보험 시스템들은 공공 부문의 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생산 리스크와 가격 리스크를 결합하여 관리하는 수단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된 공공적 수단은 재배 보상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리스크 방지(동식물 방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지원, 직접 지불, 농촌 개발 수단들은, 그 주요 목표가 소득안정이지 리스크 감소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농민들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격지지 메커니즘이 핵심 생산물들에 대한 가격 리스크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 리스크 관리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EU 수준의 수단들로는 동식물 방역 정책과 회원국들의 재해 보상, 보험 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있다.

유럽에서의 리스크 노출 정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EU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넘어선 수준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수단들이 농민들의 리스크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검토된 바 있다. 그리고 특정 리스크 관리 정책이 소득지지 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리스크 관리 정책의 목표는 소득 지지가 아니라 소득 또는 소득 구성요소들의 유동성을 줄이는 데에 있다. 리스크 관리 수단은 장기적인 소득 경향을 역전시킬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⑴ 리스크 감소를 위한 시장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할 때

⑵ 기존의 소득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는 리스크 감소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때

⑶ 유럽 연합 수준에서의 개입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개입에 비해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낳을 때

4.1. 가격리스크에 관한 논의

비록 아젠다 2000 이후에도 시장 개입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남아 있지만, 소고기와 곡물 가격이 더욱 낮아짐으로써 가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수단들, 예컨대 등급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품들에 대한 선물시장이나 옵션시장의 활용과 같은 수단들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EU 선물시장에서의 거래물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생산물

의 범위가 증대하면서 역동적인 발전을 보이게 될 것이다.

EU는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격 지지가 점차 감소되어 감에 따라, 유럽 전역의 농민들이 점증하는 가격 불안정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수단들이 필요하다. 둘째, 선물 및 옵션 시장은 시장 투명성에 기여한다. 농촌개발 정책의 범주 하에 있는 교육이나 훈련 같은 수단들을 통해 선물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이 더욱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EU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장려가 요청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모든 유럽 농민들에 대한 선물시장이나 옵션시장에 대한 특별 정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

4.2. 생산리스크에 관한 논의

전통적으로 EU 회원국들은 생산자들이 생산 리스크에 대처하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다(재해 보상, 동식물 방역,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농업보험, 보험 보조금 등). EU의 역할은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거나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시장 왜곡을 피하는 수준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정도에만 국한되어 왔다.

국가의 지원에 대한 EU의 지침은 회원국들이 국내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 결과 기존의 농업보험 체계는 회원국들마다 그 조직, 보험금 규모, 국가 개입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보험에 대한 EU 수준의 개입은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4.3. 비주기성 소득지지에 관한 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주기성 소득지지는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다. 그러한 접근방법이 의미하는 바는 필요한 시기에 소득 지지를 제공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의 폭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단은

농장 분에서의 심각한 피해를 억제함으로써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반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사후적인 재해보상 수단들이 지닌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WTO의 그린 박스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결책은 사회 안전망과 같은 수단들과 유사한 양상을 지닌 것으로,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보장하려는 목표로 마련된 기존의 국가 사회보장체계와 양립가능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 농민들이 추가적인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설명이 요구된다.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국제기구 논의동향

제8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제2차 NTC 컨퍼런스의 논의동향과 향후과제
중국의 WTO 가입절차와 향후전망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산림분야 추진성과

제8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1. 회의개요

새로운 WTO농업협상은 UR 협상에 따라 도출된 농업협정문 제20조에 근거하여 포괄적 의제를 함께 다루는 뉴라운드의 출범과 상관 없이 2000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UR협상 당시 선진국의 협정이행이 끝나는 2000년부터 협상 재개가 합의된 농산물 협상은 2000년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001년 3월에 개최된 7차 특별회의를 끝으로 각국이 WTO에 제출한 제안서 검토를 목적으로 한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5월21일~23일간 개최된 제8차 특별회의를 통해 다시 제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제1단계 WTO 농업협상을 중간 평가하는 회의의 성격으로 지난달 3월 개최된 7차 특별회의에서 합의한 제2단계 협상계획대로 TRQ 관리방법, 관세, 감축대상보조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1단계 농업협상에서는 협상 목표 및 방법에 대한 각국 제안서를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앞으로 개최될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개진된 주요 의제별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번 회의로 시작된 제2단계협상에서는 당초 의제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구체적 논의를 위한 시간부족, 공산품 등 포괄적 의제를 함께 다루는 뉴라운드 출범과 연계시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입장을 반복하거나 명확히 하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호주, EU, 스위스가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제시하는 문건을 제출하여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쿠바 등 14개 개도국은 공동으로 개도국우대에 대한 문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일본은 지금까지 제출된 각국의 협상제안서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목록 형식으로 제출하면서 각국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음에 개최될 비공식회의는 예정대로 7월 23일에서 27일간 개최키로 하고, 앞서 결정된 10개의 초기의제 이외에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Blue Box, 특별긴급관세, 환경, 식량원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표시, 분야별 접근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대상 의제로 확정하였으며,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종료하였다.

새로운 농업협상의 골격마련을 위한 제 2단계 협상은 금번 회의이외에 앞으로 남아 있은 다섯 번의 특별회의를 통해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제 2단계 협상진전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2002년 3월에 개최되는 공식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1년간 WTO 제2단계 농업협상에서 논의될 협상의제로 확정된 것은 19개로서 다음과 같다.

⑴ 5월 특별회의 의제(이미 논의 종료)
- ○ 관세할당제와 수입관리방식, 관세, 감축대상보조

⑵ 7월 특별회의 의제
- ○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⑶ 9월 이후 의제
- ○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제, 허용보조, 생산제한하 직접지불, 특별긴급관세제도, 환경,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특혜조치, 식량원조, 소비자 정보와 농산물 표시, 부문별자유화

이번 제2단계 농업협상 추진을 위한 농업위원회 제8차 특별회의에서 케언즈그룹, EU, 개도국그룹은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구체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소극적으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본입장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농업부와 USTR의 고위직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케언즈 그룹은 "공산품과 농산물의 동등취급(Equal Footing)" 등의 과격한 주장을 다소 피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EU는 다른 수입국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할 전망으로, 식량안보 등의 이슈에서 다른 수입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의제별 협상진행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심도 있는 기술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각국이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특별회의에서 결정된 10개의 초기의제 이외에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Blue Box, 특별긴급관세, 환경, 식량원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표시, 분야별 접근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대상 의제로 확정하였으며,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오는 7월에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는 수출보조, 수출신용, 국영무역 등 예정된 의제가 논의될 것과 앞으로 WTO 농업협상은 논의의 범위와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개최될 제4차 각료회의를 통한 신다자간협상(New Round) 출범 문제가 맞물려 있어 독자적인 협상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2.1. TRQ 관리방법

UR 농산물 협정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각국이 비관세 조치로 보호하던 모든 품목을 원칙적으로 관세쿼터(Tariff Quota, TRQ)의 방식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허가제, 국영무역

등 다양한 시장접근물량관리 방식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및 관리무역 등의 성행으로 UR 이후 시장개방의 이행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각국의 다양한 시장접근 물량 관리 방법이 잠재적으로 수입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규범정립과 시장접근 물량의 실질적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수입국들은 원칙적으로 UR 이후 TRQ 제도는 수출국의 대수입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TRQ관리방법은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으므로, 각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TRQ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규범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WTO 규범 하에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TRQ 관리방법과 관련한 수출입국간 주요 논쟁사항은 다음과 같다: TRQ 수입허가의 배분방법, TRQ 수입허가의 시기별 배분, TRQ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수입업자별 TRQ 물량의 제한, TRQ의 재배분, TRQ 수입허가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부과, 국영무역기업과 생산자단체・협회에 의한 TRQ 관리 또는 배분, 낮은 TRQ 수입이행률, 개도국 수출업자의 TRQ에 대한 접근 원활화, 사전 예고 및 공고 등 투명성 요건

한편, 스위스(쿼타공매제), EU(TRQ 관리방법 전반), 호주(TRQ 관리방법의 기준), 일본(TRQ 관련 질문)등은 추가적인 문서제출을 통해 TRQ 관리방법에 대한 자국의 경험이나 TRQ 관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과정에서 스위스가 제시한 쿼타공매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TRQ 제도가 농산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전제하고,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특히 공매제도는 경쟁적 시장조건 조성, 무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비슷한 취지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TRQ 관리방법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TRQ관리방법마다 각각의 배경과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관리방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스위스는 쿼타공매제는 자국의 사용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명하고 수입이행률이 높은 제도로서,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EU는 현행 WTO 농업협정문에는 TRQ 관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TRQ 수입이행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TRQ 할당방식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케언즈 그룹의 중심국가인 호주는 TRQ 관리방법에 대한 규율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실행가능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상업적 고려, MFN 원칙, 부가조건의 비무역제한성을 제시하고, 수입권공매제는 추가적인 부과금을 발생시키므로 GATT 2조(양허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TRQ 관리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를 주장하였다. 미국은 단일한 최적의 TRQ 관리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무역왜곡적인 조치 사용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매는 시장지향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이행률이 낮았고,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매납입금은 관세부담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들어 이에 대한 투명성 있는 규율확립을 주장하였다. 호주 및 미국과 같은 취지로 캐나다는 TRQ 관리방법이 수출입업자의 상업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특히 TRQ 배분에 있어 배분규모, 수입시기 등이 수입제한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뉴질랜드도 TRQ 관리에 있어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TRQ 제도는 단일관세체제(tariff-only regime)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수입허가절차협정 및 GATT 1994 등 TRQ 관리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인도 등 개도국들은 TRQ 관리방식을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TRQ 배분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특히 인도 등 규모가 큰 개도국은 TRQ를 국별로 배분하지 말고 MFN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을 요구한 반면,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들은 소규모·원격지 공급국들의 이해도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개도국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2.2. 관세

농산물 수출국들은 지난 UR 협상이행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UR 농업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 하에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체제의 단순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UR 관세화 이행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농산물 관세는 선진국과 수출국의 경우에도 200% 이상인 품목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가와 품목간에 나타나는 관세불균형(Tariff imbalance) 혹은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 및 가공도에 따른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체제는 농산물 교역 확대의 커다란 장애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 및 관세격차문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화로 이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금까지 공산품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와 관련된 수출입국간 주요논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세감축방식으로서 공식에 의한 접근과 공식에 의하지 않는 접근, 관세제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분야별 혹은 품목별 관세인하 방식의 도입 등 보완적 접근, 관세감축에 있어 개도국 우대, 자발적 관세인하에 대한 특혜(Credit) 인정 등이다.

우선 농산물 수출국들은 품목별 관세 감축의 신축성을 보장하고 있는

UR방식은 수축국의 이익확보에 기본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보다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공식에 의한 대폭적 관세감축과 시장접근물량 확대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품목별 관세감축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기존 UR방식은 현행 국제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관세격차·고율관세·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일정률 관세인하 방식(flat cut)과 관세조화방식, TRQ물량의 대폭적인 확대, 개도국우대를 결합한 혼합방식(Cocktail approach)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주도하였다. 미국은 농산물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국가간 관세격차가 상당히 크므로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하고 국가간 관세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공식에 의한 감축을 기본으로 하고 R/O방식과 분야별 접근을 혼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높은 관세, 중간 수준의 관세, 낮은 관세로 구분하여 감축률을 달리하는 복합공식(multiple formula)에 의한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분야별 접근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감축이나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시장개방의 폭과 방식은 각국의 여건과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농산물 관세문제를 공산품과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단기간 내에 급속한 관세감축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관세감축은 기존 UR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농업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정부개입이 필요한데, 관세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합법적인 개입수단이므로 소비·생산상황, 수요, 협상의 역사 등을 감안한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국가간 관세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나 분야별접근

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EU는 관세감축 측면에서 단순하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합의하기 쉬운 UR방식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함께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주장은 협상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르웨이는 NTC와 다양한 형태의 농업의 공존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국내생산 유지가 필요하며, 생산여건이 불리한 나라 입장에서는 혼합방식과 같은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체코, 헝가리 등 이행경제국가들은 UR방식은 신축성이 있고 개혁과정의 계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관세감축에 있어 이행경제국가의 특수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 등 개도국들은 관세인하 문제는 국내보조, 수출경쟁 분야의 감축약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개도국들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접근기회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더욱이 특혜관세에 의존하고 있는 섬나라개도국 등은 특혜폭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부 개도국은 개도국에 대해 관세감축의무를 면제하거나 이미 양허된 관세의 조정을 허용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신축성 부여를 요구하였다.

2.3. 감축대상보조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허용보조(Green Box) 기준의 재검토, 감축대상보조(Amber Box)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 그리고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의 폐지여부 등이 협상쟁점이 되고 있는 데, 이번 회의에서는 감축대상 국내보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주요 논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즉 감축 방식으로서 품목별 감축 대 총액 기준 감축,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를 포함하여 현행 보조수준 계산방법, 과도한 인플레이션 반영문제 등이다.

우선, 국내보조의 감축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들은 현행 국내보조 총액기준 AMS 감축방식은 품목간 보조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

에 종종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품목별로 대폭적인 감축약속이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산물 수입국들은 국내보조 감축의 신축성 확보와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수출국이 주장하는 품목별 감축방식과 대폭적인 국내보조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케언즈 그룹의 리더격인 호주는 감축약속의 우회방지를 위한 규율 강화,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Amber 및 Blue 포함)의 상당수준 감축을 통한 철폐, 품목을 기준으로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공식 도입, 최소허용보조의 재검토 등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국내보조금 계산은 AMS에 의해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보조상당측정치(EMS)는 불필요하고, 인플레이션 반영 문제는 농업협정에 있는 규정으로 충분하며, 부(-)의 AMS는 0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미국은 감축방식과 감축폭과 관련하여 그들이 협상제안서에서 이미 언급한 Amber Box와 Blue Box는 각국의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게 되도록 감축하자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인하하고, 허용보조의 기본요건인 무역비왜곡성(Non-trade-dstorting)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규범의 우회를 막고, 모든 형태의 보조금에 상한을 설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뉴질랜드는 AMS 계산에 있어 적용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의 의미를 총생산량으로 명확히 하는 등 계산방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감축방식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새로운 장치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보조 감축의 신축성을 인정하면서 농업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유지 및 총액기준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U는 총액기준 감축, 시장가격과 연계된 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

품목불특정 AMS에 대한 규율 강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 인하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에 동조하는듯한 발언을 하였으나 Blue Box는 무역왜곡이 적어 허용보조에 가까운 조치로서 지속적인 감축면제가 요구되며, 총액기준 감축은 보조금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책결정상 회원국의 재량의 필요성을 잘 조화시킨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농업개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현행 보조금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감축과정에서 UR협상 결과의 이행경험과 NTC를 고려해야 하며,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인 감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노르웨이는 국내보조 감축을 국내시장 판매를 목표로 한 품목과 수출시장을 겨냥한 품목에 대한 것으로 이분하여 후자는 보다 엄격한 감축규범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있어 시장경제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보조·투입재보조·이자율보조 등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행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인도 등 개도국들은 현행 농업협정상 국내보조 규범은 개도국에게는 불리하고 선진국에게 유리하고 개도국에게 불리하며, 향후 협상에서는 개도국에게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고, 선진국의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은 대폭 감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내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향후 전망

제2단계 농업협상 추진을 위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1차 비공식회의에서 케언즈 그룹, EU, 개도국그룹은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소극적으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본입장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농업부

와 USTR의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된 후에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케언즈 그룹은 “공산품과 농산물의 동등취급(Equal Footing)” 등의 과격한 주장을 다소 피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EU는 다른 수입국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할 전망으로, 식량안보 등의 이슈에서 다른 수입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의제별 협상진행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심도 있는 기술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각국이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제2차 NTC 컨퍼런스의 논의동향과 향후과제

WTO 농산물협상에서 NTC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연대를 이루어 오던 한국,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을 포함하여 총 42개국의 개도국과 체제전환 구공산권 국가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제2차 NTC Conference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1일까지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다.

NTC Conference의 본래 취지는 WTO 농산물협상의 과정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한 공감대를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제1차 Conference는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제1차 회의가 NTC의 개념 자체와 중요성에 관한 토론이었던 반면에 이번 제2차 회의는 NTC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농산물협상에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농업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NTC는 국가마다 강조하는 분야가 다르고 농업활동을 통해 NTC의 각 요소가 달성되는 효과의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NTC 중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에 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3개 의제에 관한 토론은 참가자들을 3개 해당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생

산 활동이 생물다양성의 유지, 경관보전,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예; 홍수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환경보전을 포함한 NTC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기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개입과 보조가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개도국들은 현행 환경관련 허용보조정책(Green Box) 이외에 시장접근, 감축대상 국내 보조의 정책도 원용 가능해야 하며 상당한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도국들은 정부재정이 빈약하고 현행 허용정책을 원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 등의 측면에서 개도국 우대조치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현행 환경관련 허용조치를 약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은 환경 관련 NTC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국내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환경 관련 조치는 목표 지향적이어야 하며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NTC 중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촌개발은 선진국의 경우 농촌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에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 빈곤경감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원용되는 정책수단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농촌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유지가 가능한 반면 농촌개발은 개도국의 경우 여타 NTC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빈곤타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현행의 허용보조(Green Box)로는 농촌개발을 반영하는 데 부족하므로 시장접근, 수출보조, 감축대상 국내보조와 관련된 정책수단들이 원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개도국들은 개발목적을 위한 보조정책의 허용(Development Box), 최소허

용보조(de minimis)의 상향 조정, 개도국 상품에 대한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EU는 현재의 농촌개발 관련 허용정책을 약간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 나라는 농촌경제의 유지와 농촌개발을 위해 쌀 농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의 허용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지지와 시장접근에 있어서도 특별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토론에서는 식량안보는 국내생산,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재고관리 제도의 적절한 정책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일부 국가는 최소한의 국내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금지, 수출세, 수출국영무역 등 수출제한이나 수출 독과점적인 관행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상이하며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는 빈곤 및 구매력 부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기술지원, 식량원조, 개도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개선, 국제적 재고관리 제도와 기금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개도국들은 강조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정책수단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의 달성수단으로서 해외 수입과 재고관리는 국내생산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해외 식량수입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를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부분적으로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 농산물시장의 가격안정성을 제고하나, 무역자유화로 인해 비교우위가 있는 소수 수출국가로 농산물 생산이 집중될 경우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일본은 선진국의 경우 구매력 부족에 의한 식량조달과 식량안보의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기에 관한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식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식량안보에 대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선진국에도 엄연히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제2차 NTC Conference에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NTC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NTC 개념에 관한 원론적인 토의에 머문 느낌을 주었다. 이는 각각의 참가국들이 기본입장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관한 준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를 주관한 기존 NTC 6개국간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연대에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EU는 식량안보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만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국내생산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NTC Conference와 농산물협상에서는 수입국간의 치밀한 의견조율과 주고 받기식(trade-off)의 협상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정 우리나라에 중요한 NTC가 어느 분야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식량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면 추가적인 설득자료를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여타 NTC에 대한 협상대안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안보만을 주장하기에는 동조국이 드물고 반대국은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재옥 jaeoklee@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의 WTO 가입절차와 향후전망

중국은 WTO 가입에 대하여 미국, EU와 양자간 협의에서 타결을 보았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6월 14일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싸고 양국이 농업 등 3분야에 대해 최종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중국은 6월 20일 EU와 양자간 협의에 합의하였다. EU의 라미 구주위원과 브루셀을 방문중인 石広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보험 등 서비스분야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중국은 금년내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1. 미국과의 협의에서 농업보조금 8.5% 합의

이번 미국과 중국간 협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농업보조금을 개도국 수준인 총생산액의 10%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5%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양국의 통상담당자간의 집중협의 등을 걸쳐 보조금 상한을 8.5%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에 의해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보조금도 그 총액이 농업총생산액의 8.5% 이하이면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협상에서 중국은 개도국과 같은 10%를 주장하였으나, 중국의 실제 보조금사용액은 2% 정도이다. 이것은 WTO 가입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하고, 동시에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 두려고 했던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합의에서 ①2004년까지 농산물관세를 평균 17%로 내리고 이 가운데 쇠고기, 감귤류 등 미국이 우선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14.5%로 인하한다. ②수입수량제한은 관세화하고, MMA 등 저율관세 수입할당을 확대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였다. 또, 중국은 농산물에 수출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전체 가맹국에 표명하고 있다.

2. EU와의 협의에서 보험 등 개방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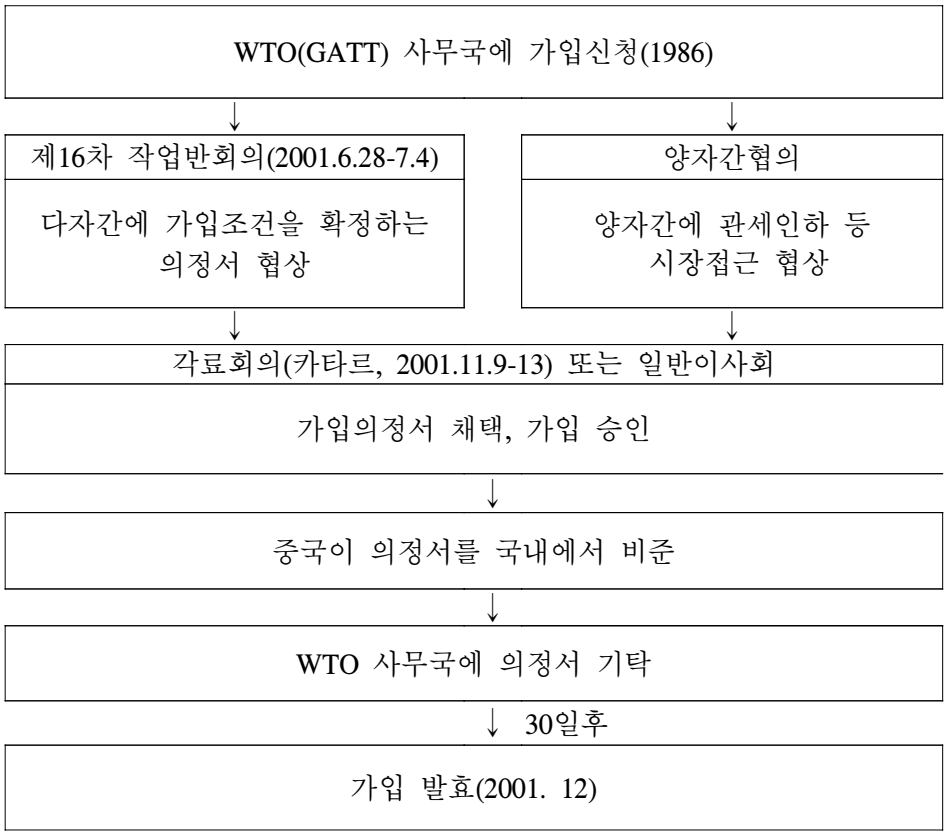
중국과 EU는 작년 10월 구주의 보험 9개 사를 새롭게 인가하는 것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이 이러한 합의를 신속히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EU와 중국은 작년 5월 중국이 보험,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EU가 중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두드러져 작년 10월에 시장개방을 둘러 싼 문제에 대해서 재차 협의하여 주요 부문에서 합의하였다. 단지, 보험, 유통분야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3. 중국의 WTO 가입절차와 향후전망

중국의 WTO 가입절차를 살펴보면, 현재 주요 가맹국과의 '양자간 협의'와 전체 가맹국과 협의하는 '다자간 협의' 등 2가지 계통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양자간 협의에서는 관세인하, 서비스 개방 등에 대하여, 다자간 협의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China's Accession to the WTO)에서 경제·무역제도 심사, 규정적용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표 1 중국의 WTO 가입절차



제16차 WTO 작업반회의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 자리는 미국·EU를 제외한 다른 주요 가맹국이 미국·EU와 중국간의 합의내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합의 내용에 대해 현저한 견해 차이가 없으면 작업반회의는 주요 사항을 타결하여 '가입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중국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멕시코와 양자간 협상을 끝내게 되면, WTO 사무국은 양자간과 다자간 협의결과를 포괄하는 '가입의정서' 작성에 들어간다.

의정서 작성은 방대한 실무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반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WTO 관계자는 보고 있다. 주요 가맹국은 차기 라운드의 출범을 시도하는 11월 카타르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승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에 탄력을 가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만약, 11월에 가입을 승인하면 연내에 발효, 중국은 정식으로 WTO의 일원이 된다.

한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농업협상에서는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참가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 및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 주도의 협상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이 틀림없다. 또, 중국은 농산물 수출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소맥과 대두 수입이 증가하는 대신에 쌀과 채소 등으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품목의 수출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즉, 중국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양면성을 가지고, 또 개도국 그룹의 대변자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산림분야 추진성과

1. 머리말

지구 환경의 보전과 경제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리우 선언과 세부실천강령(의제 21), 산림원칙,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막화방지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와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발족되었다.

이 회의의 협상과정에서 산림분야는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분야로서 몇 년간에 걸친 회의준비 협상단계에서 제기된 산림황폐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개발도상국 특히, 열대산림부국들에게 그들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위협으로 비쳐졌고, 이러한 문제는 UNCED에서 산림원칙성명과 의제21의 11장(산림황폐화)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도출의 실패요인으로 작용하였다.

UNCED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념에 입각하여 '의제21'을 구성하는 40개장의 전 분야에서 그 이행을 강구하고 있으며, UNCSD는 이러한 이행진전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산림분야는 의제21의 제11장(산림황폐화 방지), 제12장(사막화방지), 제13장(지속 가능한 산지개발)에 걸쳐 포함되어 있으며, 산림원칙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 즉, "산림자원과 임지는 현

재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라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산림분야의 경우 UNCSD 제3차 회의(1995년)에서 '산림원칙성명'과 '의제21' 중 산림황폐방지 등 산림 관련 주요의제 만을 별도로 집중논의하기 위하여 UNCSD 산하에 한시적인 '정부간 산림패털(IPF, Intergovernment Panel on Forests, 1995～1997)'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산림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는 공식협상채널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국제산림포럼(IFF, Intergovernment Forum on Forests, 1997～2000)이 설립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는 새로운 국제적 합의기구인 UN산림포럼(UNFF, UN Forest Forum)이 창설되어 활동 중이다.

IPF와 IF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을 관리, 보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중하고 건설적인 합의 도출에 설립취지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해, 정부간의 남북협력 촉진, 지속적인 목재공급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전체적 방법으로 산림 관리, UN과 기타 산림 관련 국제조직체 간의 심도 있는 상호협력을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후에서는 의제21의 산림 관련 주요 분야인 11장(산림황폐화), 12장(사막화방지), 13장(지속 가능한 산지개발) 가운데서 11장을 중심으로 UNCED 이후로 만들어진 프로세스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주요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의제21의 11장은 ①산림의 지속적인 다목적 역할과 기능의 유지 프로그램, ②산림조성과 보전 프로그램, ③자원의 이용, 가치, 평가 프로그램, ④협력, 기술이전과 무역 프로그램 등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각 프로그램별로 목표와 아울러 정책수단, 실행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2.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2.1. 산림의 다목적 역할과 기능의 지속적 유지 프로그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이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자료(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00, FRA 2000)에 의하면 선진국 산림의 88%가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 계획 하에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개도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 산림면적의 5.8%에 해당하는 117백만ha 이상이 5년 또는 그 이상의 정규적인 산림관리계획 하에 관리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표는 정책과 관리의사결정을 위한 지도와 감시, 보고를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 및 지표 수립을 위해 UNCED 이전에 ITTO의 선구적인 작업을 시발로 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9개의 국제적인 기준 및 지표 관련 프로세스가 거의 15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프로세스에서 지역 단위의 산림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표도 개발하고 있으나 기준 및 지표와 관련하여, ①참가국들이 기준 및 지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구축, ②기준 및 지표와 산림경영인증간의 상호 관계성 규명, ③과학적 건전성, 기술적 현시성, 주요 지표의 경제적 이용가능성을 토대로 한 기준 및 지표의 추가적인 개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이 프로그램의 정책수단중의 하나인 '국가산림계획'제도는 한 국가내의 산림자원을 관리, 이용, 보호, 증진하는 정책, 제도, 계획, 프로그램들을 폭넓게 포함하게 되며,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의 정치적 이행과 융통성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개별국가들이 산림관

리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조건과 개발 우선순위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AO가 1998과 1999에 걸쳐 14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96%의 국가에서 개발단계 이상의 다양한 국가산림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 국가에서 그러한 국가산림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정책의 부재, 미약한 상호협력체계, 공공참여에 대한 비효율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장치, 인적 자원, 재정 등의 부족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산림 관련 활동의 민간참여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IPF와 IFF 프로세스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포럼에서 시민, 주요 그룹의 참여확대와 아울러 참가자에게 보다 개방적인 회의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IPF와 IFF에서 제시한 행동 제안과 그 이행은 참여국가들에게 지속적인 공공참여 노력과 산림관리에 대한 책임 양도, 산림정책과 라운드 수준의 이행간의 연계 개선, 그리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지역 산림이용자와 시민들의 경험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정책과 사업, 그리고 산림관리와 관련한 양호한 관리체제의 도입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부문간 협력의 이행과 정치적 이행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2.2. 산림보전과 조성 프로그램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림보전과 조성, 산림면적의 유지는 지난 10년 동안 각국 정부의 산림정책 원칙이 되어 왔다. 그리고 산지의 농지로의 전용에 따른 산림면적의 감소나 산림황폐화의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측면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산림면적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 토지의 소유나 분배, 인구성장, 빈곤과 같은 산림부분의 영역을 벗어나는 많은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산림조성이 중요시되면서 인공림 면적은 계속 늘어나 2000년에 전세계 산림면적의 4.8%(1995년에는 4.1%)를 차지하는 186백만 ha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러한 인공림은 지속적으로 산업용재와 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구차원의 산업용재 가운데 2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림 조성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기술과 관련자의 관심, 그리고 매력 있는 정책과 투자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들은 폭넓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적인 법적 근간을 이루고,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준해 다양한 국가적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 보전 가치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관리체계하의 면적을 늘리고 추가적인 보호면적에 대한 더 전략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은 기존 보호지역의 안이나 밖에서 생물다양상 보전의 효율성 증진과 통합관리체제에 집중되어 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종의 유전자원 보전과 종간변이를 통합한 관리된 생산림은 보호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2.3. 이용, 평가, 가치, 연구 프로그램

최근 FAO의 지구 산림자원평가 2000(FRA2000)은 지난 50년간의 산림자원평가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산림면적과 황폐화의 전통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산림에 대한 원격탐사조사의 1차 비교조사결과 산림파괴는 열대지역 특히 습윤한 열대지역에서 10%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지구차원의 순산림파괴율은 연간 9백만ha로서 이는 1995년에 발표된 수치보다 20%낮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산림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산림면적 감소분만큼 새로운 인공림이 조성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에서는 오히려 산림면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자원 이용측면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 예로 유럽 종이회사들은 회원사들간의 합의하에 재활용지 비율을 49%에서 57%로 늘리고 있다. 또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벌채기술과 수확체계의 개발로서 아시아-태평양 일부 국가의 임산업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목재임산물(NWFF) 특히 대나무, 등나무, 또는 약용식물처럼 주로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생산품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하여 폭 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NWFP의 전 분야에 대한 경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산림연구, 전통적인 산림관련 지식(TFRK), 감시와 평가, 그리고 공통 개념,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은 리우환경회의 이후 정부간 산림회의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의제 8(j)의 이행작업과 산림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서 산림 관련 지식과 원주민에 대한 IPF와 IFF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림 관련 지식과 부수적인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식물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있다.

산림가치에 대한 작업의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보다는 국가나 대학 연구소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국가 통계청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FAO, Eurostat, UN통계국 등의 기구에서 국가 수입계정의 수입 부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시장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결과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의 산림관리와 임업정책의 개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비용 내부화, 임산물의 가치, 편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가치부여를 다루는 실천적인 접근측면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고,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①많은 보고 형태의 합리화와 조화, ②비목재임산물과 관련된 편익의 가치부여의 합의 노력, ③산림연구 지원, 수용력의 확대,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간의 공동연구 조장, 산림연구와 정책 결정 간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4. 협력, 기술이전과 무역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국제 산림정책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슈 자체가 산림 부문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에는 정부와 사적 부문을 포함한 일련의 다른 관계자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은 무역장벽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유인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조장하는 긍정적 측면과 개도국들이 자국내 목재가공을 촉진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정책을 쓰거나 또는 지속가능하게 생산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환경무역규제를 통해 협약을 무색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CED 이후로 이미 산림관리의 인증을 위한 50개 이상의 국제적 및 국가적 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인증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불문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인증간의 상호 인정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증받은 생산임지는 전체 산림면적의 2.1%~2.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는 차원의 무역'이라는 개념은 산림분야에서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서 임산물과 서비스의 무역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산물 무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일차 생산물과 산림의 편익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개도국, 그리고 가공과정에서 직업창출이 미약한 부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불법 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분야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CSD는 2가지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기술센타(clean technology center)와 기술이전을 위한 자금을 얻을 곳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로서 이러한 방법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 협력에 대한 논쟁은 의제 21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IPF/IFF 프로세스는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의 차별적인 역할과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 자금원천에 대하여 상세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일부 성공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3. 맺은 말

UNCED 이후로 산림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개념에 대한 지구차원의 인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많은 국가적, 국제적 산림활동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차츰 산림에 대해서 목재 중심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사회, 경제, 생태 등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산림정책과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도 보다 참여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열대림에서의 산림황폐화율은 여전히 높지만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목재생산도 차츰 인공림으로 이동하고 있고, 산림면적도 일부 온대지역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림의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정책의 토론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UNFF와 CPF는 IPF/IFF 행동제안의 이행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이행강화를 촉구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진보시키고 라운드의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국제적 조직간의 합동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 : Rio+10 Preparatory Committee 회의(2001. 4.30-5.2)자료

(손철호 shon9@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2001년도 1분기 농산물 무역개황

중국 2001년도 1분기 농산물 무역개황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2001년도 1분기 중국농산물 수출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농산물 수출입 무역총액은 56.5억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5.5%가 하락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34.8억달러로 1.9%가 하락하였으며, 수입액은 21.7억달러로 10.8%가 하락하였다. 농산물 무역흑자는 13.1억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2억달러가 증가하였다. 농산물 무역총액이 중국무역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5%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1.1%가 하락하였다. 그중, 농산물 수출총액이 중국 수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5.9%이며, 농산물 수입총액이 중국수입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4%이다.

1. 농산물 무역추세

1분기 농산물 수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10.4억달러, 11.1억달러, 13.2억달러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년의 동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2월달 9%가 증가한 것 이외에, 1월과 3월은 각각 5%와 8%가 하락하였다. 수입액은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5.8억달러, 6.9억달러, 9억달러로, 전년의 동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1월과 2월은 각각 27%와 8%가 하락하였으며, 3월은 같은 수준이었다.

2. 곡물 무역감소, 쌀 수입증가

1분기 곡물 수입은 66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3%가 하락하였다. 곡물 수출은 275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6% 하락하였으며, 곡물의 순수출 물량은 209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15만톤이 감소하였다. 그중 쌀의 수입은 8.3만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배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36.5만톤으로 55.1%가 하락하였다. 옥수수의 수출입 물량은 0.12톤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수출은 229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13.4%가 증가하였다. 밀 수입량은 8.8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68%가 하락하였으며, 수출은 없었다. 보리 수입량은 47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33.6%가 증가하였다.

1분기에 콩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수입물량은 192.6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94.2만톤이 증가하여 96%가 상승하였다. 반면 수출은 5.9만톤에 그쳐, 19%가 하락하였다.

3. 채소 수출입증가, 과일 수입감소

채소 수입은 2.2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17%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84.8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23%가 증가하였다. 과일 수입은 23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33.5%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36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10.6%가 하락하였다.

면화의 수입은 1.1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39%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6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72%가 하락하였다.

식용식물기름의 수입은 4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39.8만톤이 감소하여 91%가 하락하였으며, 수출은 4.2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67%가 증가하였다. 채유종실의 수입량은 55.5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94.5만톤이 감소하여, 63%가 하락하였다.

식용설탕의 수입량은 1.8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4.8만톤이 감소하여 72%가 하락하였으며, 수출은 3만톤으로 28%가 하락하였다.

4. 축산물·수산물 모두 수출액 증가, 수입액 감소

축산물 수출총액은 8.4억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5.7%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0.7억달러로 9%가 하락하였다. 수산물 수출총액은 8.1억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6.9%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총액은 3.4억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7%가 하락하였다. 그래서 축산물은 2.3억달러, 수산물은 4.5억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하였다.

자료 : http://www.agri.gov.cn/news/xxfb/2001/0509.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6)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6)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전체 곡물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이 2000/01년도 보다 늘고, 소맥이 약간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0.8% 증가한 18억 4,668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1/0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3,942만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3,331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2,000만톤이 감소한 수준이다.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18억 9,388만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대비 0.6% 늘어난 2억 6,423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가 될 전망이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4,700만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4억 3,942만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5	2001.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81	1,832.86	1,862.08	1,846.68	0.8	△0.8
공 급 량	2,397.57	2,353.96	2,349.61	2,333.31	△0.9	△0.7
소 비 량	1,876.47	1,867.33	1,890.43	1,893.88	1.4	0.2
교 역 량	280.84	262.66	264.68	264.23	0.6	△0.2
기 말 재 고 량	521.1	486.63	459.18	439.42	△9.7	△4.3
기말재고율(%)	27.8	26.1	24.3	23.2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1.2. 쌀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2000/01년와 비슷한 3억 964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1%감소한 591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8% 늘어난 4억 450만톤으로 전년보다 366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3.0% 늘어든 2,4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9.1%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0%가 줄어든 1억 2,629만톤이나 기말재고율은 31.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 (전망)		변동율(%)	
			2001. 5	200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08.21	396.57	399.91	396.41	0.0	△0.9
공 급 량	538.25	535.80	535.51	530.80	△0.9	△0.9
소 비 량	399.02	401.42	404.50	404.50	0.8	0.0
교 역 량	24.06	23.29	24.00	24.00	3.0	0.0
기 말 재 고 량	139.23	134.39	131.01	126.29	△6.0	△3.6
기말재고율(%)	34.9	33.5	32.4	31.2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1.3. 소맥

세계 밀 생산량은 2000/01년 5억 7,868만톤에서 2001/02년에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5억 6,93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1/02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2000/01년 5억 8,944만톤보다 약 43만톤 늘어난 5억 9,375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3,513만톤까지 늘어났으나, 2000/01년에는 1억 2,399만톤으로 줄어들었다가 2001/02년에 1억 2,763만톤으로 약간 늘어날 전망이며,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2.4%가 될 전망이다.

2001/02년에는 소비량의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기말 재고량이 전년대비 15.6% 감소한 1억 3,227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EU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6.6%에서 22.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전망)		변동율(%)	
			2001. 5	200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6.98	578.68	572.35	569.35	△1.6	△0.5
공 급 량	761.68	746.1	731.06	726.01	△2.7	△0.7
소 비 량	594.25	589.44	591.46	593.75	0.7	0.4
교 역 량	135.13	123.99	128.01	127.63	2.9	△0.3
기 말 재 고 량	167.42	156.66	139.6	132.27	△15.6	△5.3
기말재고율(%)	28.2	26.6	23.6	22.3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1.4. 옥수수

2001/0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9,853만톤으로 전년보다 2.4%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1/02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6억 1,336만톤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옥수수의 교역량의 경우도 전년보다 2.4% 늘어난 7,924만톤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13.2%로 전망된다.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1%에 이를 전망이다.

2001/02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1억 4,312만톤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3.0% 포인트 줄어든 23.3%가 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 (전망)		변동율(%)	
			2001. 5	2001.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6.72	584.78	608.55	598.53	2.4	△1.6
공 급 량	779.15	758.93	763.85	756.48	△0.3	△1.0
소 비 량	605.00	600.98	613.28	613.36	2.1	0.0
교 역 량	85.79	77.40	78.59	79.24	2.4	0.8
기 말 재 고 량	174.15	157.95	150.57	143.12	△9.4	△4.9
기말재고율(%)	28.8	26.3	24.6	23.3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0/01년에 사상 최대인 1억 7,243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1% 늘어난 1억 7,026만톤으로 전망된다.

2000/01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0.1% 증가한 5,095만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9.5%에 이를 전망이며, 전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53.2%, 브라질이 26.1%, 아르헨티나가 11.8%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1%에 이를 전망이다.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920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715만톤과 비교하여 205만톤 정도 늘어나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16.9%에서 17.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5	2001. 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81	159.71	171.45	172.43	8.0	0.6
공 급 량	184.89	186.37	198.30	199.58	7.1	0.6
소 비 량	159.93	160.49	169.48	170.26	6.1	0.5
교 역 량	38.72	46.26	49.69	50.95	10.1	2.5
기 말 재 고 량	26.72	27.15	28.79	29.20	7.6	1.4
기말재고율(%)	16.7	16.9	17.0	17.2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쌀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2001년 6월 국제가격(6월 15일 기준)은 전년대비 36.2%, 전년 동월대비 39.8% 하락한 톤당 276.5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5년 여름이래 최저수준이다.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년 6월(6월 15일 기준)에는 전년대비 15.9% 하락한 톤당 178.00 달러 수준이다. 이는 전년동

월대비 현15.2%낮지만 전월보다는 3.8% 상승한 수준이다. 현재 쌀재고량이 충분하지만 소비량과 교역량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약세장이 이어지고 장립종의 경우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2.2. 소맥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 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6월(6월 15일 기준) 현재에는 119.05 달러로 이는 전년보다 8.0%, 전년동월보다 8.1%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보다는 2.4%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기말재고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가격은 약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6월(6월 15일 기준) 현재 톤당 84.84 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는 2.5% 하락하였다. 앞으로도 기말재고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가격은 이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2.4. 대두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품,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1년 6월(6월 15일 기준) 현재에는 179.49 달러로 전년대비 7.5%, 전년동월대비 9.3% 하락하였지만 전월보다는 2.6% 상승하였다. 기말재고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두의 국제가격은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9 평균	2000 평균	2000. 6	2001. 5	2001. 6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500.56	431.70	457.45	275.58	275.58	△36.2	△39.8	0.0
쌀(장립종)	255.60	211.68	210.00	171.50	178.00	△15.9	△15.2	3.8
소 맥	122.06	110.28	110.14	122.03	119.05	8.0	8.1	△2.4
옥수수	92.1	91.94	91.70	87.06	84.84	△7.7	△7.5	△2.5
대 두	185.9	193.98	197.97	174.92	179.49	△7.5	△9.3	2.6

주 :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품, 장립종은 태국 1등품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품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품 가격임.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 (전망)		변동율(%)	
			2001. 5	2001.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38.25	535.80	535.51	530.80	△0.9	△0.9
기초재고량	130.04	139.23	135.60	134.39	△3.5	△0.9
생산량	408.21	396.57	399.91	396.41	0.0	△0.9
미국	6.50	6.10	5.91	5.91	△3.1	0.0
타이	16.50	16.83				
베트남	20.75	20.82				
인도네시아	33.45	33.11				
중국	138.94	131.54				
일본	8.35	8.64				
수입량	21.24	21.71	23.00	23.00	5.9	0.0
인도네시아	1.50	1.30				
중국	0.28	0.30				
일본	0.64	0.73				
소비량	399.02	401.42	404.50	404.50	0.8	0.0
미국	3.85	3.87	3.91	3.91	1.0	0.0
태국	9.60	9.99				
베트남	16.77	16.96				
인도네시아	35.90	36.10				
중국	133.76	134.30				
일본	9.45	9.30				
수출량	24.06	23.29	24.00	24.00	3.0	0.0
미국	2.80	2.65	2.41	2.41	△9.1	0.0
태국	6.55	6.70				
베트남	3.37	4.00				
기말재고량	139.23	134.39	131.01	126.29	△6.0	△3.6
미국	0.87	0.78	0.70	0.70	△10.3	0.0
태국	1.41	1.55				
인도네시아	2.93	1.24				
중국	98.50	94.24				
일본	1.83	1.3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표 8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2001 (추정)	2001/02 (전망)		변동율(%)	
			2001. 5	2001.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1.68	746.10	731.06	726.01	△2.7	△0.7
기초재고량	174.70	167.42	158.71	156.66	△6.4	△1.3
생산량	586.98	578.68	572.35	569.35	△1.6	△0.5
미국	62.57	60.51	53.38	52.83	△12.7	△1.0
호주	25.01	21.17	23.50	23.00	8.6	△2.1
캐나다	26.90	26.80	26.50	26.00	△3.0	△1.9
EU15	96.80	104.95	97.45	97.95	△6.7	0.5
중국	113.88	99.60	104.00	96.00	△3.6	△7.7
러시아	31.00	34.45	37.00	37.00	7.4	0.0
수입량	131.18	123.66	125.85	126.00	1.9	0.1
EU15	25.09	24.90	24.98	24.98	0.3	0.0
브라질	7.56	7.90	7.50	7.50	△5.1	0.0
북아프리카	16.62	16.80	17.00	16.60	△1.2	△2.4
파키스탄	2.00	0.15	1.00	1.00	566.7	0.0
인도	1.37	0.10	0.10	0.10	0.0	0.0
러시아	5.08	1.50	1.00	1.00	△33.3	0.0
소비량	594.25	589.44	591.46	593.75	0.7	0.4
미국	35.38	36.58	35.24	35.52	△2.9	0.8
EU15	87.21	92.46	89.50	90.00	△2.7	0.6
중국	115.62	114.00	112.99	113.00	△0.9	0.0
파키스탄	20.45	20.50	21.00	21.00	2.4	0.0
러시아	35.37	35.15	36.50	36.50	3.8	0.0
수출량	135.13	123.99	128.01	127.63	2.9	△0.3
미국	29.65	28.99	27.22	27.22	△6.1	0.0
캐나다	19.17	18.00	18.00	17.50	△2.8	△2.8
EU15	38.34	35.70	34.20	34.20	△4.2	0.0
기말재고량	167.42	156.66	139.60	132.27	△15.6	△5.3
미국	25.85	23.25	27.22	27.22	17.1	0.0
EU15	14.41	16.10	14.83	14.83	△7.9	0.0
중국	65.16	50.56	45.68	35.06	△30.7	△23.2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9/00 (실적)	2000/01 (추정)	2001/02 (전망)		변동율(%)	
			2001. 5	2001.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9.15	758.93	763.85	756.48	△0.3	△1.0
기초재고량	172.43	174.15	155.30	157.95	△9.3	1.7
생산량	606.72	584.78	608.55	598.53	2.4	△1.6
미국	239.55	253.21	243.22	243.22	△3.9	0.0
아르헨티나	17.20	16.00	17.00	17.00	6.3	0.0
EU15	37.29	38.37	39.76	39.76	3.6	0.0
멕시코	19.24	17.70	19.00	19.00	7.3	0.0
동남아시아	14.61	14.47	15.08	15.08	4.2	0.0
중국	128.09	106.00	125.00	115.00	8.5	△8.0
수입량	79.62	78.66	77.94	77.64	△1.3	△0.4
EU15	10.87	10.78	10.88	10.88	0.9	0.0
일본	16.12	16.00	15.70	15.70	△1.9	0.0
멕시코	4.91	6.00	6.00	6.00	0.0	0.0
동남아시아	4.50	4.50	4.80	4.80	6.7	0.0
한국	8.69	8.00	7.50	7.50	△6.3	0.0
소비량	605.00	600.98	613.28	613.36	2.1	0.0
미국	192.48	198.00	196.60	196.60	△0.7	0.0
EU15	38.80	39.90	40.85	40.85	2.4	0.0
일본	16.32	16.05	15.70	15.70	△2.2	0.0
멕시코	23.65	24.10	25.30	25.30	5.0	0.0
동남아시아	18.99	19.01	19.43	19.43	2.2	0.0
한국	8.40	8.30	7.60	7.60	△8.4	0.0
중국	118.00	120.00	123.00	123.00	2.5	0.0
수출량	85.79	77.40	78.59	79.24	2.4	0.8
미국	49.21	46.99	48.90	50.80	8.1	3.9
아르헨티나	11.96	5.50	11.30	11.30	105.5	0.0
중국	9.94	7.50	5.00	3.00	△60.0	△40.0
기말재고량	174.15	157.95	150.57	143.12	△9.4	△4.9
미국	43.63	52.02	48.72	48.02	△7.7	△1.4
아르헨티나	0.45	0.47	0.50	0.48	2.1	△4.0
EU15	4.11	4.64	5.71	5.71	23.1	0.0
중국	102.31	81.46	77.66	70.66	△13.3	△9.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 June. 12, 2001.

표 1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율(%)	
			2001. 5	2001. 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84.89	186.37	198.30	199.58	7.1	0.6
기초재고량	25.08	26.66	26.85	27.15	1.8	1.1
생산량	159.81	159.71	171.45	172.43	8.0	0.6
미국	74.60	72.22	75.38	75.38	4.4	0.0
아르헨티나	20.00	21.20	26.00	26.00	22.6	0.0
브라질	31.30	34.20	36.50	37.50	9.6	2.7
중국	15.15	14.29	15.70	15.70	9.9	0.0
수입량	40.47	47.52	49.66	50.84	7.0	2.4
EU15	16.77	15.67	16.68	16.73	6.8	0.3
일본	4.81	4.90	4.85	4.81	△1.8	△0.8
중국	3.85	10.10	10.50	11.50	13.9	9.5
소비량	159.96	160.49	169.48	170.26	6.1	0.5
미국	48.74	47.43	48.39	48.94	3.2	1.1
아르헨티나	18.33	18.02	19.03	18.73	3.9	△1.6
브라질	22.97	23.19	24.50	24.50	5.6	0.0
EU15	17.75	16.11	17.18	17.16	6.5	△0.1
일본	4.98	5.08	5.09	5.05	△0.6	△0.8
중국	19.93	22.58	25.75	26.15	15.8	1.6
수출량	38.73	46.26	49.69	50.95	10.1	2.5
미국	21.90	26.49	26.94	27.08	2.2	0.5
아르헨티나	3.23	4.13	5.50	6.00	45.3	9.1
브라질	8.93	11.16	12.70	13.30	19.2	4.7
기말재고량	26.66	27.15	28.79	29.20	7.6	1.4
미국	9.48	7.90	8.02	7.34	△7.1	△8.5
아르헨티나	6.16	5.61	7.48	7.28	29.8	△2.7
브라질	6.80	7.65	7.35	7.95	3.9	8.2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5, June. 12, 2001.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이정연 ljy1217@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M 45-11 세계농업뉴스 제11호 (2001. 7)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1년 7월
발 행 2001년 7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